1

주체105(2016)

루계 제317호 월간

 ISSN 1727-9062

사랑하노라

2. 래일위해 바치는 땀 열매되여 무르익고
   솟구치는 열정은 기적을 낳네
   창조로 보람넘친 나의 일터여

3. 사람들은 서로 위해 모든것을 바쳐가고
   마음합쳐 이 땅을 가꾸어가네
   떠나선 살수 없는 우리의 락원

4. 은혜로운 해빛 넘쳐 눈부시게 밝은 나라
   그 미래도 찬란한 태양의 나라
   위대한 나의 조국 사랑하노라

차 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주체105(2016)년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동포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기쁘고 인상깊은 지면들을 마련해온 잡지《금수강산》편집부는 해외에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따뜻하고 열렬한 동포애적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동포여러분은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지난해 가장 뜻깊은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였던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비롯하여 의의깊은 국가적명절들과 계기때마다 여러분은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와 선물, 축하단을 보내여오고 또 조국을 찾으며 자신들의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이며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 과학기술전당건설장 등 강성국가건설로 들끓는 조국의 곳곳을 찾아가 인민들의 위훈을 크게 고무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조국땅에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의 정세를 몰아왔을 때에도 세계도처에서 집회들을 열고 성명과 담화 등을 발표하여 사태의 본질을 까밝히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으며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덤벼드는 원쑤들의 아성을 송두리채 드러낼 멸적의 기상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조국의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려는 뜨거운 열망을 안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개막식과 자주통일대행진 백두산출정식을 벌린데 이어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판문점에로 과감히 행진하였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읽었고 그것을 《금수강산》잡지에 더 잘 담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새해에도 역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새해에도 조국인민들과 발맞추어 부강한 조국, 통일된 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가리라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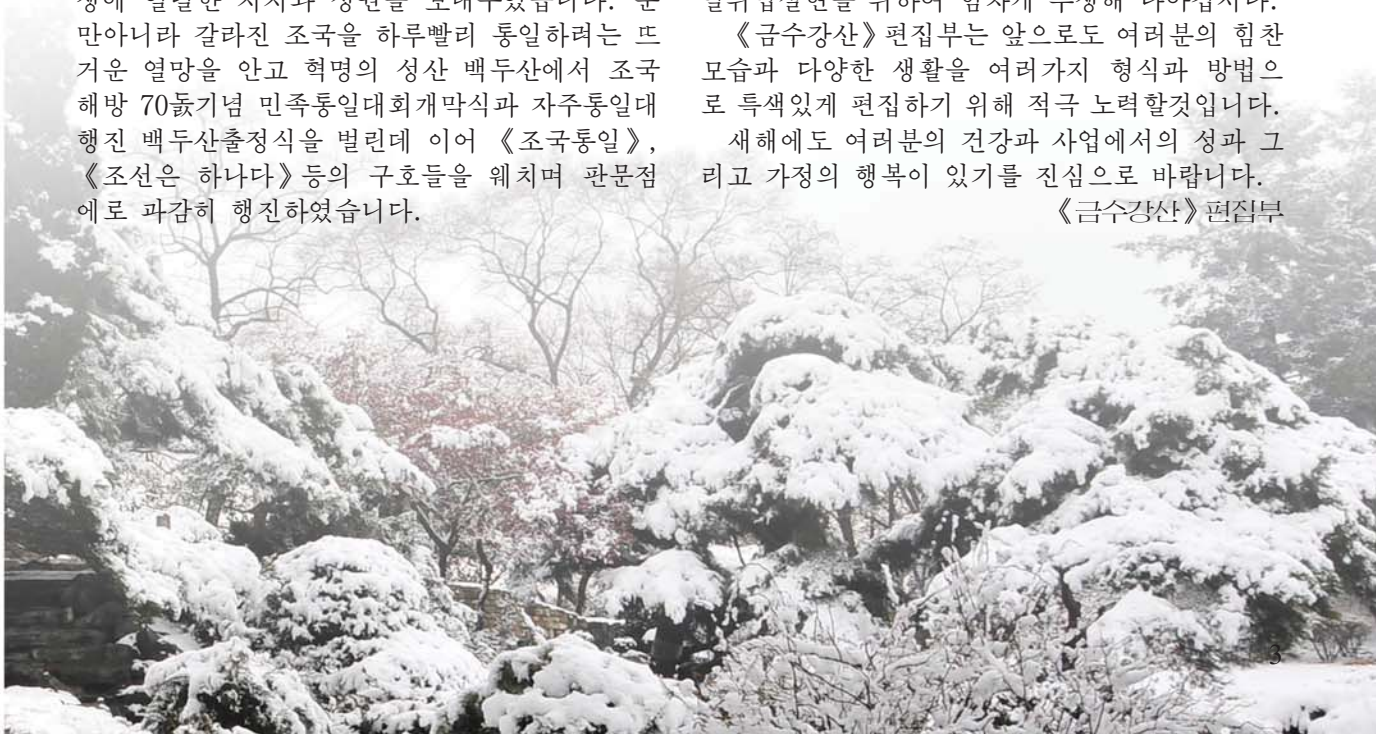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통일위업은 결코 그 누구의 선사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실정에 맞게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강성국가도 건설하고 통일도 이룩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전진을 저해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있지만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뭉친 겨레의 힘이 있는 한 통일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입니다.

우리모두 겨레의 운명이고 창창한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해에도 세상이 보란듯이 민족의 번영과 조국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갑시다.

《금수강산》편집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찬 모습과 다양한 생활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특색있게 편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에서의 성과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속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5월

- 백두청춘의 담력과 용맹으로 -

좌담회

청년중시사상이 안아온 청년강국

참가자		
	리주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권 철: 속도전청년돌격대 소대장
	윤승호: 체육성 청소년종합훈련소 초급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리은성: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엄향심: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우리는 이제 얼마 안있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주체35(1946)년 1월 17일］ 7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년동맹창립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조국땅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강국의 당당한 주인이 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였습니다.

리주철: 정말 청년들의 지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청년강국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청년문제가 얼마나 난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조국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으로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사랑,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을 청년동맹의 기본사명, 조선청년운동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리주철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청년들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청년전위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춘 젊은이들로 훌륭히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윤승호: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중시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방침,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청년운동을 강화하는것은 곧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는것으로 된다는 철리를 새롭게 밝히시여 청년중시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지난해 여러차례에 걸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발전소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리은성: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을 전달받을 때 우리 청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진정 청년사랑, 청년중시의 그 위대한 력사와 전통이 있었기에 청년들은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 청년맹장들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기자: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행복과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마다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 그들이 세운 빛나는 위훈과 업적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조국해방을 위한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의 뒤를 이어 2세대 청년들도 해방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다 바치였습니다.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빈터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데서도,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청년들은 난관을 이겨내며 위훈을 창조하고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권철: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고있으며 조국이 부르는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서슴없이 달려나가 청춘송가를 엮어나가고있습니다.

사회주의대건설전투가 한창 벌어지던 1970년대 중엽에 조직된 우리 속도전청년돌격대는 평양-마동사이, 희천-고인사이 철도전기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비롯하여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도 선봉적역할을 하였습니다.

권 철

청년들의 위훈이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한두해도 아니고 10여년간에 걸치는 오랜 세월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청년들은 함마와 정대로 천연암반을 까내고 산을 들어내면서 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가 백두

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웠으며 조국이라는 대지에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며 북부철길도 건설하였습니다.

어머니조국은 청춘들의 위훈을 대를 두고 전하기 위해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하기에 조국땅 그 어디서나 조국의 큰 짐을 우리가 다 맡자라는 청년들의 신념의 맹세가 울려나오고있습니다.

기자: 예, 저도 취재를 다니

리은성

면서 《청춘을 빛나게 살자!》,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새기고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박사 김광현이 세계물리학계에서 리론적으로 해명하지 못하고있던 레이자와 금속나노재료와의 호상작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1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론문들을 집필하여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세계과학원 청년회원, 국제리론물리쎈터 회원으로 등록된 소식은 우리모두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리은성: 청년들이라면 하나를 연구해도 세계를 놀래우는 최첨단의것을 내놓고 한가지 일을 해도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해제끼는 웅대한 포부와 진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기에 우리 청년과학자들과 대학생들은 20대, 30대에 세계를 압도하고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빛내이는 최첨단연구성과를 내놓기 위해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우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은 국제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 《코드쉐프》를 비롯한 여러 경연에서 1등을 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습니다. 리과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도 이런 동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성국가건설장들에 달려나가 현실에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발명을 하는 대학생들도 나날이 늘어나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 대학생발명가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윤승호: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이라는것을 명심한 청년체육인들은 훈련장들마다에서 무수한 땀방울을 흘리며 경기들마다에서 체육신화를 창조하고있습니다.

가까운 실례로 조국의 청년체육인들은 주체100(2011)년부터 3년간 200여차에 걸쳐 진행된 국제경기에서 40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당창건일흔돐까지만 해도 80여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20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체육인들이 성과를 이룩하였을 때에는 못내 기뻐하시며 자신의 곁에 한사람, 한사람 세우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지난해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녀자축구선수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공격전법으로 1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들모두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 평양국제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그들을 맞아주시였습니다.

리주철: 조국의 청년들속에는 고상한 미덕과 미풍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청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 청년들이 수도시민권을 얻지 못해 안타까와할 때 조국의 청년들은 수도를 멀리 떠나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농촌, 새로운 개발지들에 달려나가고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영예군인들의 영

윤승호

원한 길동무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20살 꽃나이에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고있는 《처녀어머니》인 남포시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장정화의 소행은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고결한 인생관의 발현으로 되고있습니다.

정말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시대의 영웅, 창조의 거인,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맹장들로 자라난 청년들이 있는 한 조국은 끝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청년강국으로 끝없이 부강번영하게 될것입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   *

그 이름 빛나게 새겨진것은

오늘 조국땅 그 어디에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많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 대흥청년영웅광산, 안변청년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천성청년탄광, 2.8직동청년탄광…

이루 헤아릴수 없는 그 이름들을 불러볼수록 세대와 년대를 이어 조국의 청년들이 세운 기적과 위훈이 되새겨진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였으며 조국의 부름에 심장으로 대답하였다.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이 추억하는 해주-하성사이철길공사, 주체47(1958)년 5월부터 진행된 이 공사는 80여km의 구간에 수십만m³의 성토를 하여 로반을 닦고 레루를 놓는외에도 역사와 기관차대, 검차대, 옹벽, 수십개의 크고 작은 다리 등 200여개의 구조물들을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매우 방대한 공사였다.

하지만 조국의 청년들은 주저와 동요없이 이곳으로 달려나왔다. 청년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설정된 작업계획량을 매일 4~5배로 넘쳐 수행하면서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방대한 공사를 단 75일동안에 해제끼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이천-세포사이철길건설, 북부철길건설, 원산-금강산사이철도전기화공사, 서해갑문건설, 광복거리건설, 5월1일경기장건설, 청년영웅도로건설, 안변청년발전소건설, 녕원발전소건설…

세대와 년대를 이어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거창하게 일떠서던 나날에 엮어진 청년들의 영웅적서사시는 눈물없이는 되새길수 없다.

물길굴을 완공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붕락된 갱속에서 밥대신 압축공기를 넣어달라며 억세게 착암기를 돌리던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그리며 한치한치 로반을 닦은 청년영웅도로건설자들, 그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였다.

하늘도 맑게 개인 주체89(2000)년 11월 어느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된 청년영웅도로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청년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과 눈물겨운 위훈의 력사를 더듬어보시는듯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미더운 길동무이라고,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세상에 크게 자랑할만한 영웅청년들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금방석에 올려놓아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지난해 9월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

청년영웅도로의 일부 주체89(2000)년 촬영

2.8직동청년탄광의 청년혁신자들

일 화

믿 음

지난해 주체104(2015)년 5월.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위훈을 떨치고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발휘한 수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청년들은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해빛도 화창한 그날 울고웃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충정을 맹세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아버지앞에서 자기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식들 같았고 또 어찌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뭉쳐진 하나의 별무리와도 같았다.

기념촬영장에 펼쳐진 화폭은 조국의 청년들이 떨치는 위훈과 고상한 미풍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어떤 믿음, 어떤 사랑이 청년들을 그토록 훌륭하게 키워냈는지 알수 있게 하였다.

이날 청년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이 담겨진 꽃다발을 받으시고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과 청년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알고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의 소행은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다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은 우리 식,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과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조국의 모든 청년들이 부강조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와 슬기를 남김없이 떨쳐 자랑찬 위훈을 세우게 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게 하는 자양분이였다.

* * *

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건설중에 있는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그렇다.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 청년이라는 그 이름이 빛나게 새겨진것은 조국의 청년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땀, 그들의 영웅적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려는 조선로동당과 조국인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이런 영웅적청년들이 있는한 조국은 젊음으로 약동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솔미

수 기

나의 삶을 두고

사람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처럼 값높은 시절은 없을것이다.

오늘 조국보위초소와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는 미더운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청년일군으로 사업하는 긍지와 함께 지나온 청춘시절이 다시금 떠오른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11년제의무교육과정을 마칠 당시 대학을 지망하였던 나는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부른 조국의 부름에 접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나는 수도건설청년돌격대에 탄원하여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당시 조국은 해마다 겹쳐드는 자연재해와 지구상에서 유일한 사회주의보루인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력사책이나 문예소설들에서나 보아오던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였다.

그러니 희망과 포부를 안고 첫걸음을 뗀 나의 돌격대생활도 결코 헐치 않았다. 처음 해보는 힘든 일도 어려운 난관도 물론 힘에 부쳤지만 돌도 삭일 한창나이에 배고픔을 이겨내는것이 제일 힘들었다. 그때마다 정든 고향집과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야외작업을 나왔던 길에 그 누구도 몰래 집으로 갔다. 사실 그때 나의 심정은 힘든 돌격대생활을 그만두자는것이였다.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달려나와 반겨맞아주었는데 아버지는 1년만에 만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무말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날 밤 잠들었던 나는 내 몸에 와닿는 그 어떤 감촉에 눈을 떴다. 아버지가 내 머리맡에 앉아 나의 얼굴을 내려다보는것이였다.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천일아, 돌격대생활이 힘들다는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 네가 지금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사람구실을 못한다. 어서 돌격대로 돌아가거라.》

아버지의 절절한 당부는 나로하여금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였고 나약해졌던 의지를 채찍질해주었다. 이렇게 청춘시절의 첫걸음을 뗀 나였으며 조직력있고 전투력있는 집단에서 단련되며 성장하였다.

그러던 주체85(1996)년 1월 나는 뜻밖에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대표자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그런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실줄이야. 그이께서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고쳐부르도록 해주시였고 손수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청년동맹기발까지 수여해주시였다.

나는 그러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깃든 사회주의를 청년들이 끗끗이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되였다.

그 사랑, 그 믿음속에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일군이 되였으며 조선로동당원으로,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학위학직소유자로까지 성장하게 되였다.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고 그 폭과 깊이를 알수 없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청년들에게 몸소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 1. 26》라는 친필을 보내주시고 청년절을 맞을때에는 멀리 전선길에서 축하문도 보내주시였으며 청년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그리도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원수님의 사랑앞에 청년들뿐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격정으로 가슴을 적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혁명의 1세, 2세들에게는 저들의 자본주의 검은 마수가 통하지 않아도 3세, 4세들은 문제가 다르다고 떠벌이고있으나 그것은 한갖 오산에 불과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청년들에게서는 그 어떤 변화란 있을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긍지높이 말한다.

조국의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들어 조국땅우에 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천일

- 백두청춘의 담력과 용맹으로 -

믿음은 충정을 낳는다

조국의 량강도 동부와 함경북도 북서부일대에 펼쳐져있는 백무고원, 이곳에 위치한 백암군 천수와 유평지구에 조국의 청년들이 건설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우뚝 솟아있다.

지난해 9월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쾌한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언제의 정점에 서시여 여기에 올라서면 그가 누구이든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한편의 시를 읊으시듯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청년돌격대원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횡포한 자연과의 투쟁에서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는지 우리는 아래에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조국의 청년들이 백두대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이다. 사실 서두수의 물을 막아 3개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이 공사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공사대상이였다. 그중에서도 1호발전소건설은 더욱 그러하였다. 발전소가 서게 될 지구는 북방특유의 엄혹한 추위와 찬 날씨가 년중 절반을 차지하고 천수라는 지명그대로 여름철에는 비가 하루에도 여러차례 때없이 내려 서두수를 범람하게 하였으며 그 일대를 진창천지로 만들어버리였다. 게다가 교통 또한 최악의 조건이였다. 오죽했으면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돈이라면 오금을 못 쓰는 일제까지도 이 일대의 나무와 자원을 략탈할 목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려다가 끝내 손들고 나앉고 말았겠는가.

하지만 조국의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믿음 하나만을 심장속에 새겨안고 결사관철의 의지로 공화국의 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이곳에 발전소건설의 첫삽을 박았다. 그들속에는 청년동맹일군도 있고 로동자, 농민, 사무원출신의 청년들도 있었으며 중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자원하여 청년돌격대에 입대한 청년들과 처녀들도 있었다.

단련이 부족하고 건설경험도 없는 그들이였지만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 시각부터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살며 투쟁하였다. 병실 하나를 짓고 일과생활과 건설을 하여도 다 그것으로 일관시켰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창조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그들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 지침으로 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갓 끝낸 나라의 형편을 잘 알고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바로 이 정신으로 뚫고나갔다.

그때 제일 걸린 문제는 세멘

잠들줄 모르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 주체104(2015)년 촬영

트, 강재, 운수수단이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거의나 멎어있던 세멘트공장을 개건하여 세멘트를 생산하고 쇠물을 끓여 강재를 부어내며 전기기관차까지 자체로 만들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돌격대에는 별의별 기술자, 경험자, 재간둥이들이 다 있었다. 그들의 창조적지혜가 대중의 슬기와 합쳐져 묘안, 묘책들이 기술적으로 안받침되여나오게 되였다. 수십차례의 실험과 실패가 계속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일어나 실패의 원인을 찾고 또 실험하였다.

성공의 날은 오고야말았다. 그들이 자체로 만든 《선군청년전위》호전기기관차에 자체로 만든 세멘트, 강재가 실리여 공사장으로 가게 되자 건설속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1호발전소언제공사와 2호발전소사석언제건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2호발전소물길굴건설에서도 련일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곳 본토배기들에게는 강추위가 들이닥치는 겨울에 밖으로 나다니는것을 모험으로 여기는 오랜 관습이 있다. 그러나 청년돌격대원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진 추위속에서도 건설을 중단하지 않았다. 기중기주행로교각건설도 그러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겨울철조건에 맞는 공법을 애써 찾아내고 이 기간에 80％의 교각을 건설함으로써 언제타입속도를 배로 높이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령하 30℃를 기록하던 어느날 교각기초 및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던 작업장에서 물을 푸던 양수기가 정전으로 멎어버리였다. 삽시에 물이 차올랐다. 이때였다. 가슴치는 얼음물에 뛰여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따라 온 돌격대원들이 물속에 뛰여들었다. 뼈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속에서도 돌격대원들은 조금도 비관을 모르고 혁명가요를 부르며 2시간동안이나 전투를 벌리였다.

그들은 이렇게 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산중에 멋진 운동장과 정양소를 훌륭히 꾸려놓고 다채로운 체육활동과 문화정서생활을 하였다.

지난해 4월 어느 일요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산이고 사랑의 젖줄기이며 조국의 만년재부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를 하루빨리 완공하자는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완공의 기쁨속에 이곳에서 대합창공연을 진행하자고, 자신께서도 꼭 보시겠다고, 그날 발전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자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이후 발전소건설장은 하나의 거대한 격전장으로 변하였다.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까지 합쳐 베풀어주신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무조건 보답해야 한다는 하나의 일념만이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여기서 주타격방향은 1호발전소였다. 발전소를 완공하자면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지난해까지의 년평균타입량에 비해 5.5배이상의 콩크리트타입을 해야 하였다. 세멘트와 골재수송을 맡은 운전수들은 높이가 1 000여m를 헤아리는 백암령을 비롯한 수많은 령길들을 달리고 또 달리였다.

건설장은 계절을 몰랐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언제타입공사에서도 기존관례를 깨뜨리는 새 기록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그들은 지난 시기 같으면 한주일 걸리던 언제기중기이설작업시간을 단 하루로 단축하는 동시에 선별, 혼합, 타입설비들의 능력을 훨씬 늘이여 타입실적을 배로 높이였다. 어제 세웠던 기록이 오늘은 낡은것으로 되고 새롭게 갱신되는 혁신이 분과 초를 다투며 일어났다. 뿐만아니라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이 련이어 창조되여 공사기일을 최대로 앞당기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였다. 누구나 건설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일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일하는 등 그야말로 초인간적인 격전을 벌리였다. 자기들이 맡은 구간을 끝내면 다른 구간에 달려가고 또 그것을 끝내면 련이어 달려가 일하고일하는것이

청춘의 랑만은 발전소건설장 곳곳에도

- 백두청춘의 담력과 용맹으로 -

청년돌격대원들의 일본새였다.

드디어 1호발전소언제콩크리트타입을 결속하는 력사적인 시각이 다가왔다. 이날 혼합물바가지들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혼합물이 아니라 꽃보라를 뿌리였다.

돌격대대원인 조현미는 이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오늘을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내가 그 기적을 창조해온 청년돌격대의 한성원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외동딸로 태여나 그저 응석이나 부리던 내가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가. 하다면 이러한 기적과 위훈창조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청년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믿음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기적은 생기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

아, 원수님 계시는 수도 평양에 우리가 건설한 언제를 메고갈수는 없을가. 지금 우리 원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가.》

자나깨나 그이를 우러르며 충정의 마음을 바쳐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들이 거둔 기적과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친히 준공테프를 끊으시였으며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리고 1호발전소언제앞에서 군민청년대합창공연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를 관람하시고 장쾌하게 터져오르는 승리의 축포를 뜨거운 격정속에 바라보시였다.

지난 세기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인적드문 대지에 도시를 일떠세운 공청원들의 위훈을 《용감성》이라는 유명한 장편소설에 담아 력사에 남기였다. 그러나 조국인민들은 그 《용감성》이라는 단어우에 조선청년들의 슬기와 힘, 랑만의 상징과도 같은 《애국충정의 피와 땀, 영웅적위훈》이라는 표현을 올려놓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언제의 높이는 자기 령도자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해가는 조선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하면서 3호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완공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주체104(2015)년 10월 촬영

고상한 정신세계

남달리 희망과 포부가 크고 꿈이 많은것이 청춘시절이다.

한생에 다시 없을 청춘시절을 가장 값높이 빛내이자, 이것이 조국청년들이 지닌 삶의 목표이고 지향이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그 이름이 그리도 빛나는것이다. 청년들의 그 모습은 그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 5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범적인 청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소행을 하나하나 들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선구자가 되고있는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진주보석에도 비길수 없는 소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전국의 청년미풍선구자들과 청년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청년들이 지닌 소중한 사상정신적풍모는 그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그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는 수령결사옹위정신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저 멀리 세월의 언덕을 넘어 항일혁명투쟁의 나날로부터 흘러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을 따라 20성상 항일의 피어린 혈전만리를 헤쳐왔고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혁명의 1세, 2세들, 그들의 뒤를 이어 전세대 청년들은 조국의 부름이라면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로 달려나가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수령의 부름에 충직하였고 언제나 수령만을 생각하였다.

그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타번지는 불길과 사품치는 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생명을 바치면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와 혁명사적건물을 안전하게 보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바치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 향기그윽한 꽃바다를 펼치고싶어 10여년간 붉은색 나리꽃을 정성껏 가꾸어오고있는 청년들을 어찌 천으로, 만으로 헤아릴수 있으랴.

청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미풍은 오늘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국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줄 알고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는것이 조국의 청년들이다. 그들은 탄광과 광산, 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용약 달려나가 강성국가건설에서 새 기적,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 등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에 자기들의 값높은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였다.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진 섬과 심심산골의 분교들에 교원으로 자원진출하였으며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고 전쟁로병들과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청년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그가운데서도 일곱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며 《처녀어머니》로 불리우고있는 남포시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장정화의 소행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나라앞에 부모없는 7명의 아이들을 자기가 책임졌다는 각오로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며 아이들을 키워내고 어엿하게 내세웠던것이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이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정화의 소행에 대하여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안아주고싶었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수백만청춘모두를 아들딸로 품어안고 참되고 용감하게 키워 조국앞에 내세워주고있는 품이 있어 이렇듯 《처녀어머니》가 태여나고 온 나라 청년들이 위훈과 용감성의 체현자로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이런 고상한 정신세계의 체현자들의 대군이 있어 조국은 그리도 강하고 미래는 그리도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유선화

명확한 항로를 제시하여

올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해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백승의 기적만을 창조해온 조선로동당의 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지난해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커다란 긍지를 안고 올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터들마다에서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장장 70년을 백승에로 향도해온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무궁한 힘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다. 세상에는 집권당도 많고 정치조직들도 수다하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인민의 운명, 혁명의 운명을 걸머지고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오유도 없이 백승의 령도사를 아로새겨온 당은 세상에 없다.

조국인민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폭풍쳐달려온 주로는 조선로동당이 명확히 그어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항로이다.

조선로동당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이끌어온 과정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열어나가는 간고하고도 어려운 투쟁의 나날이였다.

남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어려운 행로를 헤치며 여러 단계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야 하였지만 조선로동당은 단 한번도 그 어떤 기존리론이나 공식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더구나 없었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독창적인 주체의 한길인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줄달음쳐왔다.

조선로동당이 명시하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자주, 선군, 사회주의로선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요구, 조선의 실정에 맞는 조선혁명의 좌표이고 기본주로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로선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전통,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고 조선혁명의 근본원칙과 곧바른 진로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하기에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짓밟히우던 어제날의 식민지 약소국이 오늘은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조국은 보다 휘황해질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경이적인 사변은 결코 지나온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인민이 나아갈 명확한 항로로 제시하였기때문이다.

력사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만이 인민의 리상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길,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할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높고높은 산들을 넘고넘으며 조선인민을 향도해온 조선로동당의 업적은 강성부흥의 만년토대를 쌓아올린 민족사적업적이며 인류의 정의와 꿈을 지켜준 세계사적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하여 줄기차게 고수되여온 조선로동당의 자주, 선군, 사회주의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가 총화되는 력사의 분기점에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혁명의 변함없는 전략으로 선언하시였다. 주체의 한길로 전당과 전민, 전군을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오늘 조국에는 약동하는 젊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차넘치고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명확한 항로를 제시하여 승리에로 이끄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은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건설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리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손정도목사

(전호에서 계속)

해석(바다의 돌)이라는 손정도목사의 호에 그의 특징이 그대로 다 반영되여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교직자의 간판을 가지고 한생을 항일성업에 고스란히 바쳐온 지조가 굳고 량심적인 독립운동자였다. 손목사는 길림에 와서도 정의부의 혁신계 인물들과 함께 시대의 변천에 순응하는 독립운동의 방향전환과 애국력량의 단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리가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류길학우회를 조직하던 그무렵에는 만주농민호조사결성발기인이 되여 그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손정도목사는 동생(손경도)의 명의로 액목현의 경박호일대에 50향의 땅을 사서 농업공사도 경영하였다.

안창호가 제창한 《리상촌》의 일각이라고도 말할수 있을것이다. 경박호반은 안창호선생이 한때 제일 눈독을 들이였던 리상향건설의 후보지였다. 목사는 농업공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손정도목사의 장례는 봉천회관에서 기독교식으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합방이전부터 수십년의 풍상을 독립항쟁에 바쳐온 목사의 령전에는 일본경찰의 방해로 인하여 40명 남짓한 조객들만 모였다고 한다. 생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속에 에워싸여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시키던 목사일진대 고인과의 작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것이였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였으니 경찰이 립회하는 식장에서 눈물인들 제대로 흘리며 통곡인들 제대로 하였겠는가.

나는 멀리 길림쪽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뿌리며 간도땅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손목사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이 나라 아버지들의 영령을 지키고 원한을 씻기 위해 기어이 나라를 찾고야 말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나는 나라를 찾는 길이야말로 은인들의 신세를 갚는 길이고 그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길이며 인민의 손과 발에서 쇠고랑을 벗겨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후 나와 손정도목사의 유가족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현세기가 다 가는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있는 분단의 비극은 우리를 철조망과 콩크리트장벽과 파도사나운 대양으로 사정없이 갈라놓고있다. 나는 평양에, 손인실은 서울에, 손원태는 오마하(미국)에, 우리는 반세기이상이나 서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손정도목사와 그의 유가족들을 잊은적이 없다. 그들에 대한 추억은 시간과 공간의 끊임없는 교차속에서도 풍화되거나 덞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세월과 함께 련면히 이어져왔다.

민족의 비극이 심화되고 우리를 갈라놓고있는 장벽이 높아질수록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 선혈을 뿌리던 은인들과 렬사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력사는 그 그리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1991년 5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서 병리학의사로 일하던 손정도목사의 막내아들 손원태가 우리 해외동포영접부의 초청으로 부인(리유신)과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송화강 모래터에서 소년회원들과 류길학우회원들이 《땅》편과 《바다》편으로 갈라져서 군사놀이를 할 때 매번 내가 속한 편에 들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던 십대의 연약한 소학생 손원태는 생일 여든돐을 앞둔 백발로인이 되여 내앞에 나타났다. 60풍상의 지꿎은 장난도 그의 백발밑에 뚜렷이 새겨진 길림시절의 흔적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주석님!》하고 부르며 나를 얼싸안는 손원태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있었다. 수만마디의 언어가 집약되여있는 눈물, 참으로 많은 사연을 담고있는 눈물이였다. 허구한 세월 그리움으로 가슴을 에이면서도 우리는 어찌하여 백발이 다되여서야 만나게 되였는가. 무엇이 우리의 해후를 반세기이상이나 끌어오게 하였던가.

60년이란 인간의 옹근 한생에 맞먹는 장구한 시간이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비행기들이 하늘을 씽씽 날고있는 문명시대에 십대에 헤여졌던 사람들이 80이 다되여 만난다면 우리를 로년기에로 끊임없이 떠밀어온 그 시간의 루적은 너무나도 무정하고 공허한것이 아닌가.

《손선생은 어떻게 되여 머리가 그렇게 세였습니까?》

나는 지난날의 소년회원이 아니라 미국시민권을 가지고있는 로학자를 대하는 공식적인 말투로 손원태에게 물었다.

손원태는 길림시절에 그랬던것처럼 약간 응석기가 비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김주석님을 만나뵙고싶어 마음을 쓰다보니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길림시절에 김주석님을 형님처럼 따르고 주석님도 자기를 동생처럼 사랑해왔는데 제발 선생이라는 호칭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원태라고 합시다.》

나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서먹서먹하던 감정은 순간에 사라졌다. 우리는 흡사 길림시절로 되돌아간듯 한 기분이였다. 나는 평양의 응접실이 아니라 길림의 옛 하숙집에서 손원태를 만나는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다. 길림시절에는 나도 손목사네 집에 자주 찾아갔고 손원태도 내가 하숙하는 집에 뻔질나게 찾아왔다.

차광수처럼 목을 늘 한쪽옆으로 기울이고 다니던 체소하고 과묵한 소년, 그러나 일단 입을 열기만 하면 기지가 번쩍이는 롱과 유모아를 련발하여 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하던 제4성립학교 소학생 손원태, 그가 병리학의사가 되였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백발로인이 되였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였다. 새삼스럽게 머리를 잡아휘두르는 격세지감, 길림에서 헤여진것이 어제 같은데 그처럼 다감하던 소년시절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로인이 되여 그 시절을 옛말처럼 이야기하고있는것인가.

나는 손원태와 함께 길림에서 보낸 나날들을 끝없이 회상하였다. 소년회와 관련한 생활은 두말할것도 없고 거리바닥에서 코흘리개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던 개눈깔사탕장사까지도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였다.

길림의 사탕장사들은 참말 능청스럽기도 했지. 사탕이 먹고싶으면 함지에서 한알 꺼내여 입안에 슬쩍 집어넣고 실컷 굴리다가 그걸 도루 뱉아서 팔군 했으니까. 아이들은 사탕을 사먹으면서도 그 사탕이 장사군의 입에 한번씩 들어갔다가 나온 사탕이라는걸 눈치채지 못했거든.

우리는 이런 회상앞에서 만가지 시름도 다 잊고 큰소리로 웃군 하였다.

손원태는 서방에서 떠도는 소문과 달리 주석님께서 퍽그나 정정하시다고 하면서 나의 손을 허물없이 끌어당기더니 한참동안 내 손금을 살펴보는것이였다.

나는 그때 몹시 어리둥절했다.

(다음호에 계속)

조국땅에 울려퍼진 총성

위대한 수령님의 삼촌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찍으신 발자취는 조국땅 곳곳에 어리여있다.

량강도 김형권군(옛 풍산군), 함경남도 리원군, 홍원군, 북청군…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을 때 김형권동지께서는 무기획득을 위한 투쟁을 헌신적으로 벌리시는 한편 각지의 청년들을 무장대오에 결속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계시였기에 국내진출의 어려운 투쟁과업을 남먼저 받아안으시였다.

주체19(1930)년 8월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시며 량강도의 삼수, 풍서를 거쳐 풍산군(당시) 파발리에 이르시였다.

그때 파발리부근 황수원 들쭉밭에서 잠시 지체하였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악질경관 《오빠시》순사부장(본명-마쯔야마)의 의심을 받게 되였다. 순사부장으로 말하면 풍산지방에 틀고앉아 조선사람들의 손발을 얽어매며 포악하게 날뛰던 악질경관이였다. 그래서 이 고장사람들은 그자에게 《오빠시》라는 별명까지 붙이였다. 《오빠시》에 대한 이 고장인민들의 원성은 하늘에 닿아있었다.

소조원들이 주재소앞을 지나갈 때 《오빠시》는 그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그이께서는 주재소에 들어가자마자 그자를 단호하게 처단해버린 다음 총소리를 듣고 모여온 인민들앞에서 공개적인 반일연설을 하시였다.

《동포형제자매들! 망국노의 처지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남녀청년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서 일제를 때려부십시다!》

그이의 힘있는 연설은 군중을 격동시켰으며 그들의 반일투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떠난 무장소조일행은 봉오골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법계 주임이 탄 승합차를 억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밖의 승객들에게 반일선전을 하였으며 련이어 리원군 문앙리일대에 진출하여 배덕골과 대바위골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숯구이로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북청방면으로 진출하시여 대덕산의 광제사에 둥지를 틀고 《토벌》에 미쳐날뛰던 일제경찰들을 어두운 밤에 습격하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여러 전투를 진행하여 일제침략자들을 공포와 불안에 빠뜨렸다.

조국땅에 울려퍼진 총소리,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일제에 대한 울분과 원한을 풀어주는 복수의 총성이였으며 국내인민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 애국의 불씨를 심어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혁명의 메아리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주체19(1930)년 9월초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일제주구의 밀고로 그만 일제경찰들의 포위속에 들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탄알이 떨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원쑤들을 쓸어눕히며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불행하게도 원쑤들에게 체포되시였다.

그이께서는 홍원경찰서며 함흥감옥, 서울의 마포형무소 등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순간도 멈추지 않고 굴함없이 싸우시다가 주체25(1936)년 1월 12일 일제교형리들에 의하여 형무소에서 최후를 마치시였다.

그이의 생은 짧았어도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열혈혁명가로 김형권동지는 조국력사에 별처럼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민족의 힘을 합쳐가는 길에 조국의 통일이 있다

새해 주체105(2016)년이 밝아왔다. 새해를 맞는 이 아침 우리 겨레의 가슴은 기어이 통일된 강성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칠 결의로 차넘치고있다.

지나온 한해를 총화하고 새해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설계해보는 이 시각 우리는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하게 맞은 주체104(2015)년을 창조와 기적의 한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맞고 보낸 날과 날들을 다시금 되새겨보고있다.

지난해 주체104(2015)년은 한마디로 말하여 강성번영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들끓은 나날이였다.

지난해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무자비하게 쳐갈기고 백두산대국의 필승불패성과 무진막강한 청년강국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창조의 거세찬 불길속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백두산청년강국의 상징으로 웅장하게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1단계,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장쾌하게 솟아올랐다.

과학기술부문과 경제강국건설에서 본보기들이 창조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교육, 예술, 체육 등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도 전환이 일어났다.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서의 연구성과,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와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준공,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천지개벽되여 농장도시로 변모, 큰물피해를 가시고 30여일만에 일떠선 라선시의 선경마을,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의 우승…

더우기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북남통일축구대회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같은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는 극적인 사변들이 일어나 겨레의 가슴마다에 피는 물보다 진하며 마음과 마음을 합치면 그것이 곧 통일에로의 길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일본, 중국, 로씨야, 미국 등 세계의 곳곳에서 살고있는 동포들도 뜻깊은 지난해에 서로의 마음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으며 조국해방 7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을 때에는 조국의 지붕아래 모두 모여 민족의 경사를 함께 경축하였다.

지난해에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총진군대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며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주요공업부문을 추켜세워나가며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반드시 끝장내려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이다.

지난해에 이룩된 사변들은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발걸음을 합쳐나간다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중시사상을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중시는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애국애족의 립장이다. 조국통일운동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된 조국통일방안들에는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겨레의 의사와 리익을 우선시하는 애국애족의 립장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겨레의 심장마다에 통일헌장으로 자리잡고있는것은 그것이 민족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고수하는 민족적리념에 따라 조국통일문제를 공명정대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통일지침이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분렬책동으로 갈라진지 70여년세월이 흘렀다. 북과 남은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살아왔고 또 서로가 자기의 사회제도와 정치리념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런 현실적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방도는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이다.

공화국은 벌써 수십년전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6.15북남공동선언에서도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최대의 민족중시사상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높이 들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국가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또한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다름아닌 외세때문에 세기를 이어오며 오늘까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민족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러나 격동의 6.15통일시대를 펼쳐놓은 6.15북남공동선언은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를지라도 민족의 대의를 앞세우면서 우리 민족끼리정신으로 굳게 손잡고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 민족사를 창조해나가게 하였다.

외세에 의존하고 그와 공조하여서는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를 절대로 해결할수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 마음과 힘을 합쳐야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다.

온 겨레는 조국의 통일은 오직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때 자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민족모두의 힘과 마음을 합쳐 통일에로 지향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대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자주권을 확립하는데서 민족대단합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행정에서 순간도 멈출수 없는 중대과제이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천하지대본이다. 분렬로 하여 생겨난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반만년의 민족사를 이어오면서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이 훨씬 더 크기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겨레의 심금을 틀어잡을수 있었던것이다.

민족의 힘을 합쳐가는 길에 조국의 통일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희망찬 새해에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온갖 원쑤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 *

신심과 락관속에 맞이하는 새해

새해 주체105(2016)년이 밝아오고있다.

어디 가나 명절분위기에 휩싸인 조국의 모습은 새해의 풍경을 그려보게 해주고있다.

새해 첫아침 조국인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 태양상들이다.

그들은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드리는것이다. 이것은 조국인민들의 제일 숭고한 례의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되고있다.

그리고 새해 첫날 부모님과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친척, 친우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머니들과 안해들이 성의껏 만든 민족음식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곱등어들의 재주가 늘어만나는 릉라곱등어관, 새로 개업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비롯하여 자기들이 가고싶은 곳으로 집식구들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아이들이 꼽는 곳은 정말 많기도 하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중앙동물원, 릉라인민유원지의 거울집, 웃음집, 전자오락관…

가고싶은 곳, 보고싶은것이 너무도 많아 새해전부터 아이들은 그 일정을 시간별로 면밀하게 짜느라 머리를 쓰고있다.

각곳에 있는 조선옷점과 급양봉사망들 또한 분망하다. 조선옷점의 재단사, 재봉공들은 주문자들이 새해에 입고 나설 조선치마저고리와 조선바지저고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고 급양봉사망봉사자들은 민족의 향기가 넘친 음식들을 식탁에 풍성하게 올려놓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있다.

조국인민들은 새해를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는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킨다.

새해의 풍경을 그려볼수록 위대한 인민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온다. 그 모습을 우러를수록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이라면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야 한다시던 그이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온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사상이 차넘치는 조국이여서, 이 조국을 위해 인민들은 온갖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주체104(2015)년을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인것처럼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새해에도 더 많은 일을 할 결심과 열의에 넘쳐있는것이다.

그래서 조국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차넘치고 새해에로 찍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 힘있고, 더 억세여지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들끓는 공장

모든 생산공정들이 무인화, 무진화, 무균화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강냉이가공공장에서 여러가지 강냉이가공품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가루와 국수, 빵, 과자, 단묵 등 여러가지 강냉이가공품들은 영양가와 맛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강냉이가공품과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높은것으로 하여 평양시민들을 비롯한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대단히 인기가 높다.

식료공업의 본보기공장으로 일떠선 공장에는 생산공정조종과 경영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가 완벽하게 세워져있으며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다.

지난해 8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이며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흠잡을데가 없는 멋쟁이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제품의 품질관리에 첫째가는 힘을 넣고있다.

공장에서는 맛과 영양가에서뿐아니라 위생안전성에서도 흠잡을데가 없는 질좋은 강냉이가공품들의 생산을 위하여 실험분석실에 첨단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화학, 미생물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이 공장의 생산자들은 맛좋고 특색있는 강냉이가공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원료를 철저히 국내원료에 의거하고있다.

옥쌀, 국수, 빵, 기름, 튀기, 과자, 단묵 등 강냉이가공품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강냉이와 물엿, 농마, 우유 그리고 갖가지 향료 등 모든것이 국내의것이다.

이곳 생산자들은 공장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과학기술자료열람과 기술학습은 물론 원격교육을 받으며 앞으로 더 우수한 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있다.

공장일군인 김남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공장 전체 종업원들의 열의는 정말 대단하다. 그 앙양된 열의속에 우리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 원료보장문제, 제품의 위생안전성과 질보장문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문제 등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강냉이가공품들을 더 많이 보내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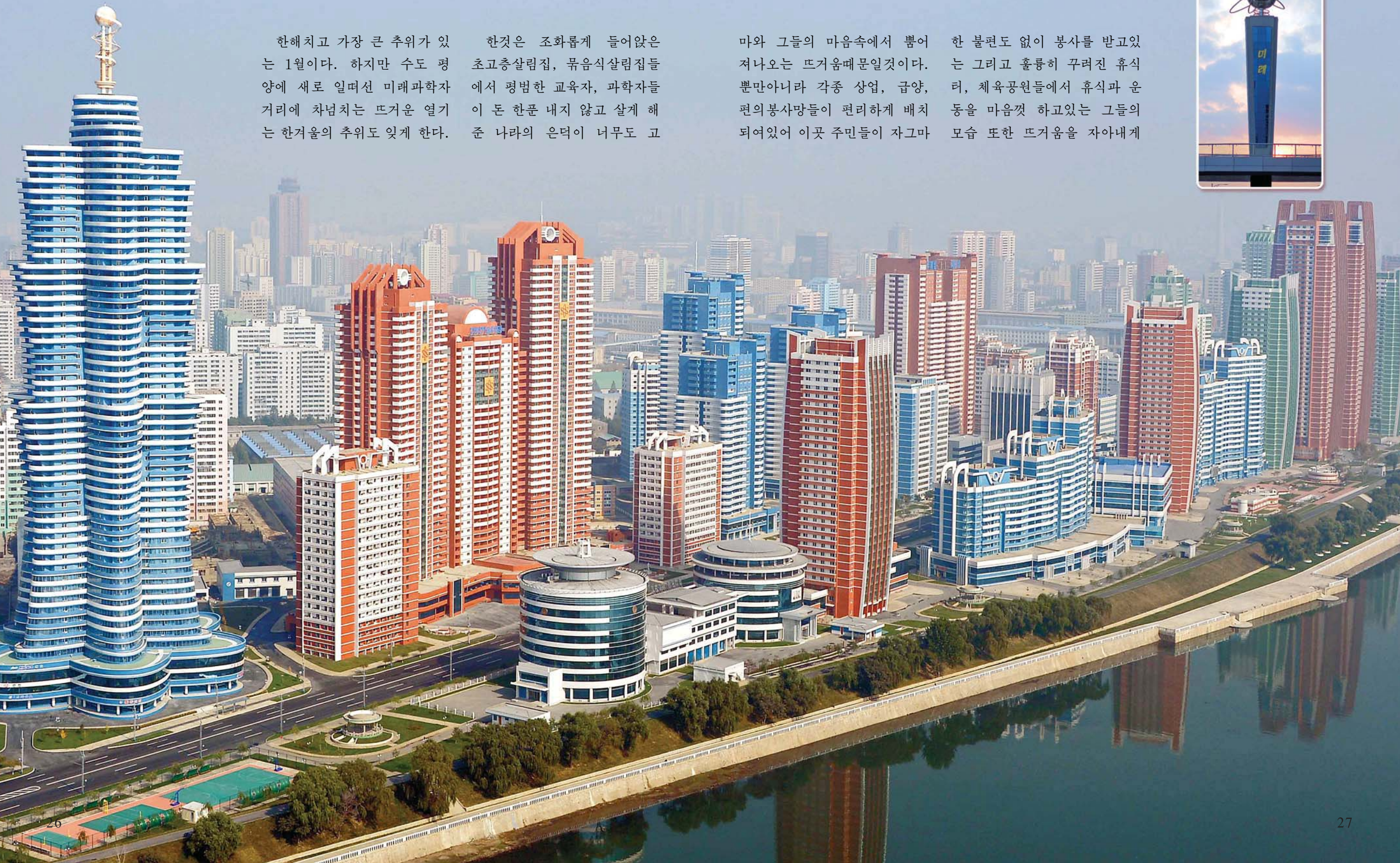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 (↑)

곳곳에 꾸려진 강냉이전문식당들에서 봉사하는 여러가지 강냉이음식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

조국의 미래가 보이는 거리

한해치고 가장 큰 추위가 있는 1월이다. 하지만 수도 평양에 새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에 차넘치는 뜨거운 열기는 한겨울의 추위도 잊게 한다.

한것은 조화롭게 들어앉은 초고층살림집, 묶음식살림집들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살게 해준 나라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그들의 마음속에서 뿜어져나오는 뜨거움때문일것이다. 뿐만아니라 각종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이 편리하게 배치되여있어 이곳 주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봉사를 받고있는 그리고 훌륭히 꾸려진 휴식터, 체육공원들에서 휴식과 운동을 마음껏 하고있는 그들의 모습 또한 뜨거움을 자아내게

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이런 선경거리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여러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새살림을 펴고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기 위해 어느 한 살림집에 들리였다. 알고보니 그 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77호동 3층 1호였다. 집주인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교수 박사 리종락이였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첫 순간부터 그는 받아안은 은덕이 하늘같아 눈물만 앞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저로서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새 집에 입사하는것만 해도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집이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집일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령도자의 발기와 지도밑에 웅근 하나의 도시와 같은 황홀한 거리,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살림집을 건설하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0월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

보시면서 말씀하신것처럼 자기들도 공동살림방, 부부방, 부엌 등에 고급가구와 비품들까지 그쯘히 갖추어진 집에 손짐만 들고 와서 이렇게 살고있다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살림집을 돌아볼수록 집안의 구석구석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었다.

감격적인 이야기들은 같은 대학교원 장신일의 집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제는 사랑의 이 집에 보금자리를 편지도 두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새 집이 너무 좋아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온 가족이 잠들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희한한 살림집에서 나처럼 평범한 교원이 산다는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선뜻 믿지 못할것입니다. 특히는 과학자들의 존엄이 돈에 의해 롱락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일것입니다. 하기에 저는 조국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정책의 정당성을 뜨겁게 절감하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후대교육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심을 다지군 합니다.》

그의 안해 역시 교육자,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남편이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안해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고 하였고 자식들도 아버지처럼 조국을 과학과 기술로 받들어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들뿐이 아닌 우리가 들린 아니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가정들에서 울려나오고있었다. 나라의 은덕을 한생토록 대를 이어 간직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 이바지해나가겠다는 심장의 목소리들이였다.

살림집들뿐이 아니였다. 거리의 상점에 가보아도 휴식터와 체육공원에 가보아도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는 나라의 은덕에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꽉 차있었다.

우리는 조국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정책의 생활력이 활짝 꽃펴날 강성조선의 래일을 후덥게 안아보며 거리를 나섰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우승의 기쁨을 안고

11련승의 주인공들

정일봉상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탁구경기에서 11련승의 기록, 이것은 평양에 있는 대성구역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 탁구소조원들이 거둔 성과이다.

물론 그 과정에 11년이라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러번 주인공들을 바꾸었지만 학교의 련승의 력사는 변함없이 계속되고있다.

참으로 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학교소조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대단히 높다고 한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어벌이 커져 중앙급선수권대회들에도 대담하게 참가하여 5~6등의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치르어야 할 12련승도 이미 확정적인것으로 되게 하고 있다.

하다면 이 학교탁구소조원들은 남다른 학생들이겠는가. 그렇지도 않다. 부언하건대 소조활동이 천성적인 특기가 위주로 되는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 누구나가 배우는 대중적인것으로 되고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만나본 3학년 14반 강금령과 1학년 4반 안진향학생들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그러하다.

학생들의 아버지는 모두 특류영예군인이며 본인들은 탁구에 취미조차 못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소조에 망라된 이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전도유망한 탁구선수후비로 자라나게 되였다.

탁구소조원들의 훈련과정을 보면 기초기술훈련에 음악을 리용하며 매 소조원들이 자기에게 맞는 탁구기술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매우 강도높게 하고있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안진향학생은 말하였다.

《이렇게 매일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기초기술동작을 하느라면 마음이 굳세여지면서 훈련을 잘해야겠다는 각오가 저절로 생기고 훈련기간도 배로 단축된답니다. 그리고 몸의 탄력과 유연성, 민활성 등이 생기는것이 막 알립니다. 사실 저는 좀 둔한 축이여서 탁구를 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니 자신심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그런 진향학생에 비하면 김명성학생은 천성적인 기질을 가지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높은 탁구기술을 소유하게 되였고 탁구개인경기에서 1등의 영예도 남먼저 쟁취하게 되였다.

그래서인지 명성은 개인경기에만 치우치면서 단체경기를 등한시하여 학교가 우승하는데 후과를 미친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명성은 잘못을 뉘우치게 되였고 이제는 단체 및 개인경기에서 학교 기둥선수로 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기간 이렇게 자란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중앙의 전문체육단 기둥선수들로 활약하고있다.

얼마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중앙급 홰불체육단선수로 된 리룡만 놓고보아도 그는 벌써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 국제경기들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시기 학교시절 정일봉상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학교의 영예를 빛내였다면 오늘은 조국을 빛내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홰불이 될것이다.》

하기에 지도교원 최춘애는 오늘까지 이룩한 11련승은 대중체육사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이 가져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조국을 하루빨리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도입하여

훈련을 맹렬히 벌리고있는 소조원들

손으로 웃음을 창조하는 요술배우들

교감요술 《주패변하기》

지난해 8월 텔레비죤으로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1위를 쟁취한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을 축하하는 국립교예단 요술배우들의 공연이 있었다.

그들은 교감요술인 《댕기재주》, 《담배띄우기》, 《해면공재주》, 《병나오기》 등 다양한 종목들로 축구선수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다.

꼭같이 댕기의 두끝을 잘라도 자꾸만 차이가 나 보는 사람들의 웃음주머니를 흔들거리게 하는 《댕기재주》, 한여름의 갈증을 덜어주려는듯 연방 시원한 대동강맥주를 담은 병이 솟구쳐나오는 《병나오기》…

축구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질줄 몰랐다.

손으로 웃음을 창조하는 요술배우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담고싶어 국립교예단을 찾았다.

주체41(1952)년 6월 국립교예단의 창립과 더불어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 요술창작단은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수많은 요술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기능요술 《주패폭포》

그중에서도 일반요술 《막대기재주》, 환상요술 《신기한함》, 《무사들》 등의 작품들은 국제요술축전에서 최고기술상, 특별상들을 받았으며 주체100(2011)년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형요술공연은 관중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감요술 《해면공재주》

창작단이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요술극장에 들어서니 요술창작1단 배우들이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정말 낯익은 얼굴들이였다.

그들중에는 여러 국제요술축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배우들인 김철, 김광철형제들도 있었다.

창작단단장이면서도 요술배우인 김철(54살)은 과학기술에 의한 요술작품을 창작하고있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수많은 과학도서들을 읽었으며 세계적인 요술발전추세도 연구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작품창작을 위해

그는 창작의 여가시간에는 시대정신이 민감한 작품들을 높은 기교로 형상해내도록 배우들의 작품지도도 성실히 해주고있다.

책읽기를 즐겨하고 엉뚱한데가 많은 그의 동생 김광철(49살)은 기발한 착상으로 신진배우들의 물음표를 감탄표로 만들어주고있다. 교감요술 《변하는 돈》, 《담배띄우기》가 다 그의 작품들이니 십분 리해가 되였다. 여기서 덧붙일것은 김광철배우의 아들 김광성도 늘 아버지의 훈련장으로 와서 그 모습을 보아서인지 평양교예학원에서 요술을 배우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평양교예학원시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능요술 《주패재주》를 보여드리였던 로석현(23살)도 손으로 주패원펴기, 주패 한장에서 넉장 나오기 등 여러 기교동작들로 《주패폭포》작품을 더욱 세련시키고있다.

나이가 많아도 탁구알굴리기를 비롯한 기초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고있는 김봉일, 생활에 가까운 요술로 만들기 위해 출퇴근길에서도 늘 머리를 쓰는 리일진,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장금주, 김혜경, 리수경, 김리향…

정말 요술배우들이 출연하는 공연의 시간은 짧아도 작품 하나하나에 바쳐지는 이들의 성실한 땀은 한계를 몰랐다.

좀 쉬면서 하라는 우리의 말에 김철단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생활에 가까운 요술만이 인민들에게 웃음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요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3차원 경맥침혈 해부도를 완성한 의학자들

지난해 5월 제17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서였다.

참가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는 한 의학자가 있었다.

민족의 의학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 의학자, 그가 바로 지금까지 고려의학계에서 제일 난문제로 되고있는 경맥에 대한 연구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기초의학부 강좌장 한명국이였다.

그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저 혼자 이룩한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지혜와 힘이 안아온 결실입니다.》

정말 그러하였다. 대학에서 경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조를 뭇고 사업을 시작한것은 주체99(2010)년 11월이였다. 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연구조가 조직되였던것이다.

연구조성원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그들은 이미 다른 의학기관에서 만든 경혈신경도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인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구조에 대한 연구사업을 침혈과 인체구조물(피부, 뼈, 근육, 혈관, 신경)들과의 관계속에서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3차원적으로 인체모형을 조직층별로 제작할 목표를 내세웠다.

연구사업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경맥침혈해부도연구조에서도 한명국강좌장과 변일수교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365개의 침혈, 14개의 경맥과 인체구조물들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그들은 100여차례의 여러가지 실험속에서 정확한 수치를 찾아냈고 나라의 의학계에서 처음으로 침혈해부프로그람을 작성하여 마침내 3차원모형을 만들어내게 되였다.

경맥침혈해부도완성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한명국강좌장은 《침혈해부도가 완성됨으로써 앞으로 경락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 활성화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였으며 보건일군들뿐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침혈의 위치를 쉽게 잡고 과학적인 치료를 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침을 놓는 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우발증을 막고 침구학, 침혈해부학, 안마학 등 교육사업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3차원 경맥침혈해부도에 저작권과 2개의 국가과학기술성과등록증이 수여되였고 제17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증서가 수여되였다.

오늘도 연구집단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유모아

말은 간결해도 뜻은 전달되다

선생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게으르다고 하는가?》라는 작문제목을 제시하였다. 선생이 작문을 검토하다가 한 학생의 작문을 보니 첫페지, 둘째 페지에는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세번째 페지에다 한마디를 써놓았다.

《이것이 바로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　*　*

(MR.) Ohm Cederberg & DR. Sook Lim, M.D. 7415-133rd St.
Ct. E Puyallup, WA 98373, U. S. A.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외삼촌, 뜻깊은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에게 멀리 조국에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외삼촌의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이국에서 설을 맞고계실 외삼촌생각이 절로 나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외삼촌이 허리병으로 신고한다는 소식을 들었댔는데 지금은 치료에서 차도가 있는지 그리고 외삼촌어머니의 건강은 어떠한지 무척 궁금합니다. 외삼촌내외가 다 건강하여 무고하리라 믿습니다.

명절이면 혈육들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앉군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자주 외우군 합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였던 외삼촌이 제가 대학생이라고 그리도 대견해하며 몹시 만나보고 싶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덕천자동차단과대학(당시)에 다니였는데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 실습을 나가있은것으로 하여 외삼촌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쉬움이 오늘 이렇게 한으로 남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로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있어도 세월이 흘러도 외삼촌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아마도 한피줄을 나눈 혈육의 정은 끊을수 없는가봅니다.

이미 제가 보낸 소식을 통해 알고계시겠지만 외삼촌이 조국을 다녀가신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군급기관의 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마음씨고운 안해는 집살림을 알뜰히 할뿐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도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외삼촌이 편지에서 그렇게 보고싶다던 성경이와 성범이도 잘 있습니다. 춤을 잘 추는 딸 성경이는 지난해에 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자랑거리는 영웅숙천고급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 성범이랍니다. 성범이는 공부를 잘해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몇년전에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평양에 갔다온 후 성범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겠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학과경연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커서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겠다는것이 성범이의 꿈입니다.

세상에 부럼없이 성장하는 자식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대할 때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행복이 넘칠수록 외삼촌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외삼촌, 기회를 봐서 꼭 조국을 다녀가십시오. 오시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이모들의 마음까지 합쳐 외삼촌을 며칠이라도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외삼촌, 보고싶은 마음, 하고싶은 말을 다하자면 끝이 없을상싶습니다.

그럼 외삼촌내외분이 언제나 건강에 주의를 돌리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평안남도 숙천군 읍 41인민반
조카 신제철 올림

고향소식

바다로 나아가는 은률땅

얼마전 우리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고있는 차임성동포의 고향인 황해남도 은률군을 찾았다.

조선의 6대명산중의 하나인 구월산이 바라보이는 은률읍에 들어서니 읍지구에 훌륭히 꾸려진 공원에서 농장원들이 추는 탈춤이 한창이였다.

흥겨운 선률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였다. 그러는 우리에게 안내하던 은률군인민위원회 일군인 최영순이 이번에 새로 발굴한 《은률탈춤》이라고 알려주었다.

세월의 이끼속에 묻혔던 《은률탈춤》이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오늘 새롭게 태여났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군을 돌아보면 아마 우리 군의 전변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읍지구를 돌아보면서 군의 전변속에 어려있는 이곳 인민들의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잘 알게 되였다.

군인민위원회 마당에 보존되여있는 홍문리 5층돌탑이며 새로 건설한 수영장과 은덕원, 미래원 그리고 학교와 병원, 유치원 등 그 어디에 가보아도 자기 고장에 대한 이 고장인민들의 애착과 손길을 느낄수 있었다.

미술신동들이 자라난다. (은률군 은률유치원에서)

은률군 농장원들이 출연하는 《은률탈춤》

더우기 처녀시절부터 교양원을 하면서 여러차례의 전국재간둥이경연을 비롯한 여러 경연에서 우승한 수십명의 어린이들을 키워낸 은률군 은률유치원의 김은혜, 리정화교양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깊이 감동시켰다.

읍지구를 돌아본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덧 은률광산에 다달았다.

우리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사적이 깃든 금산포구의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에 올라선 우리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눈뿌리 아득히 뻗은 제방과 간석지, 소금밭들과 농경지들이 넘실거리는 조선서해의 물결을 배경으로 펼쳐져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은률광산의 박토처리용벨트콘베아에 의해 만들어진 200m의 폭을 가진 제방우로는 3선으로 뻗은 도로가 곧추 나있었고 그옆으로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빼곡이 서있었다. 그사이로 바라보이는 새로 일떠선 문화주택들은 한폭의 그림을 련상시켰다.

금산포구의 경치에 반하여 서있는 우리에게 은률광산혁명사적관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해방전 일제가 은률광산의 철광석을 략탈해가던 여기 금산포가 오늘과 같이 전변된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주체54(1965)년 1월과 주체64(1975)년 6월 우리 은률광산을 찾아주신 수령님들께서 광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박토처리용장거리벨트콘베아까지 놓아주시여 우리 은률군이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바다로 나아가고있습니다. 그런 우리 군에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젓갈가공공장까지 일떠서고있으니 정말이지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긍지가 넘쳐납니다.》

금산포에 펼쳐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을 뒤에 두고 우리는 산동리에 위치하고있는 료양소에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경치좋은 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은률군인민위원회 은률온천료양소는 무척 아담하고 정갈하였다.

우리와 만난 료양소소장은 은률온천은 구월산을 중심으로 신천, 삼천, 안악, 은천 등 도의 여러군들에 있는 온천들과는 달리 18~38℃의 미온천으로서 순환기계통과 부인과계통, 신경계통과 소화기계통의 환자들에게 특효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새로 꾸린 음악치료실로 안내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창안한 수자식고려전자종합치료기입니다. 노래선률과 화면, 박자로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아서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16차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듯 음악치료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비껴있었다.

우리는 땅은 바다로 나아가고 사람들은 나날이 더 젊어지는 이 고장의 모습에서 래일에는 더더욱 살기 좋아질 은률땅을 그려볼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아버지의 당부

평양연극영화대학 촬영학부 영화촬영강좌 교원 고승방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육자이다.

그에게는 늘 학생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있다.

촬영묘리를 터득하려는 학생, 롱구, 배구를 짬시간에 배워달라는 학생… 하여튼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우리가 그를 만나러갔을 때에도 그는 학생들속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촬영한 화면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주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깊었다.

《촬영기에 생활을 담기 전에 인류가 창조한 문화에 대한 깊은 리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많은 영화들과 작품들을 분석해보고 화면적으로 구상해보아야 한다.》라고 그는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를 방해하고싶지 않아 그의 강좌로 먼저 향하였다.

영화촬영강좌 강좌장 고명철은 이야기에 앞서 고승방교원이 집필한 《주체의 예술영화촬영리론》, 《영화촬영기술》, 《사진촬영》 등 많은 교재들을 우리앞에 내놓았다.

교재들마다에는 그의 땀배인 노력과 열정이 슴배여있었다.

고승방교원은 자매예술은 물론 수학, 물리를 비롯한 과학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학생들의 질문에 언제나 만족한 대답을 주었으며 교육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체육인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죤예술영화 《소녀유술강자》(4부작)를 비롯하여 여러

고승방

예술영화들을 손색없이 촬영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강좌장 고명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학창시절 고승방선생님에게서 영화촬영기술과목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늘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참신하게 강의를 해주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작품촬영을 할 때에는 매 각자가 자기 식의 독특한 개성을 살리면서도 본질을 정확히 담아내도록 지도를 주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촬영기술을 배운 많은 학생들이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를 비롯한 명작들을 창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학생들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선생님은 나이가 많은것으로 하여 저에게 강좌장사업을 인계하였습니다.》

주체96(2007)년 고승방은 부교수의 학직을 받았으며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그는 대학적인 아니 문화성적인 롱구, 배구선수이다. 60살이 넘은 지금도 그는 학생들과 함께 경기를 하고있으며 난도동작들도 어렵지 않게 수행하고있다.

강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생을 묵묵히 후대들을 위해 바쳐온 고승방교원의 삶의 자욱을 더듬어보는데 마침 그가 들어왔다.

정말 후대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는 우리의 말에 그는 머리를 젓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 고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일본 오사까의 안경공장에서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유술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고 프로레스링, 권투, 검술을 배워 《아시아의 맹호》로 불리운 고태문, 하지만 조선사람인것으로 하여 주체44(1955)년 7월 일본 오사까의 부립체육관에서 진행된 일본프로레스링강자와의 경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반칙》이라는 부당한 선언으로 져야만 했던 고승방의 아버지였다.

고태문은 주체50(1961)년 5월 자식들모두를 데리고 조국의 품에 안긴 후에야 조선유술협회 초대위원장(당시)으로 사업하면서 진정한 삶을 누릴수 있었다.

《수많은 유술선수들을 양성하여 공훈체육인의 칭호를 받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 존엄을 안겨주고 꿈을 꽃피워주는 조국을 받드는 성돌이 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라고 고승방은 말하였다.

그후 조국을 방문하였던 이모는 고태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모두가 대학을 나오고 중앙기관들에서 일하고있다는것을 알고는 일본에 있었더라면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못 키웠을것이라고, 정말 조국의 품은 어머니품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고승방은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었다.

《조국을 받드는 성돌이 되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상 식

불면증을 막는 방법

① 소음이 많은 곳에서 잘 때에는 배경음성법을 쓸수 있다. 즉 인공적으로 단조로운 소리를 내게 한다. 비오는 소리, 폭포소리, 파도소리 등은 소음을 감소시킨다.

② 양털담요는 체온을 쉽게 조절하여 잠들게 한다.

③ 연한 베개보다 약간 굳은 베개를 벤다.

④ 잠자리에 들어 20~3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좀 움직이다가 자야 한다.

⑤ 머리속에 사업상문제가 기억되여있을 때 그것을 종이에다 써놓고 잊어먹어야 한다.

⑥ 트립토판은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 트립토판은 우유, 물고기, 락화생 등에 들어있다. 잠들기 전에 당분이 들어있지 않는 과자와 우유 한고뿌를 마시면 좋다.

⑦ 잠들기 전에 단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⑧ 배고픈 상태나 배부른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지 말아야 한다.

⑨ 음량을 낮추어 먼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듣듯 잠자리에서 서정적인 음악을 듣느라면 곧 잠에 들수 있다.

* * *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매진합시다

동포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주체104(2015)년이 어느덧 흘러가고 새해 주체105(2016)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체104(2015)년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해였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국해방 70돐, 6. 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

얼마나 뜻깊은 날과 달들이였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국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그 어떠한 최신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힘의 원천이라며 그리도 가슴부풀어하던 세계의 각곳에서 조국으로 온 해외동포들의 모습이 어려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온 한해 조국인민들과 함께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서있었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어도 조국인민들과 마음을 함께 하였고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다 바친 여러분이였습니다.

동포여러분은 6. 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자며 일본, 중국, 로씨야, 미국 등 동포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들에서 기념보고회, 기념모임, 시랑송 및 노래경연, 강연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백두산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판문점까지 행진해가며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를 의의깊게 장식하였습니다.

그 나날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고패친것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일념뿐이였습니다. 그 의지를 안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맞고 보낸 낮과 밤을 정말이지 무심히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며 끊어진 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하여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취하며 뜻과 힘을 합쳐나갔습니다.

동포여러분의 그 모습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힘을 주고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더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국의 마음과 마음들이 합쳐져 하나로 될 때 바로 민족의 단합이 이룩되고 그토록 갈망하던 통일이 성취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해에 해야 할 일들을 새겨보느라니 저도모르게 두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야 할 길도 애국의 길, 통일의 길이며 북과 남,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모두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하는것입니다.

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이며 민족의 대단합이자 겨레가 바라는 통일입니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련대와 단합으로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온 겨레의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은 계속될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는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강성국가건설과 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모두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애국의 길, 통일의 길을 힘차게, 떳떳하게 걸어나갑시다.

저는 새해에 동포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가정에도 따뜻한 행복이 가득 넘쳐나며 통일애국을 위한 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외동포사업국 부처장
석창국

한생 가슴속에 안고 살겠다

나는 조국을 자주 찾군 한다.

많은 조국방문중에서 내가 제일 잊을수 없는것은 주체101(2012)년에 있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였을 때이다.

백두산하늘아래에 사는 재중동포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해외동포어머니들도 대회에 참가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촬영장에서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전체 재중동포들과 나의 마음을 합쳐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리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다지였다.

그때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와 활달한 걸음새, 우렁우렁한 음성 등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였다. 태양의 모습이였다. 광휘로운 그 모습에서 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이 창창함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실지 오늘 조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큼직큼직한 일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그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놓고보면 우리 민족은 태양복속에 산다. 이것은 해외에 사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나는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며 조국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천재련

조국애가 낳은 결실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였다.

속담에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직접 와서 보길 잘했다. 사실 고국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하여 어느정도 알고있었다. 그러나 고국의 현실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내가 본 평양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였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여러가지 모양의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시내의 곳곳에 있는 록음속의 공원들과 유희장들…

그리고 고국의 인민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우즈베끼스딴에서 태여나 오래동안 살아온 나로서는 평양의 모습이 신기하고 희한하게 느껴졌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이 푹푹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고국인민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일떠섰다고 한다. 그 모든것 하나하나가 다 고국인민들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것이고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이룩한것들이였다.

나는 그들의 말과 고국의 현실에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수 없었다. 열정에 넘쳐 그리고 하나로 뭉쳐 자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뛰고 또 뛰며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고국인민들.

나는 그 모든것이 고국인민들이 지닌 뜨거운 조국애가 낳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 조국애에 발맞추어 고국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다. 그리고 고국에 자주 오겠다.

우즈베끼스딴 《금강》예술단
단장 정 아가따

한생토록 가리라

항일의 옛 전구에서 태여나
빨찌산전설속에 자랐으니
소사하, 마안산, 미혼진…
고향마을 추억처럼 마음속에 선명했지

유서깊은 고장에서 사는 기쁨 하도 커
사람들 만날적마다 자랑도 많았지
소왕청은 어떻고 내도산은 어디쯤이고…

심혼에 다는 새기지 못했거니

허나 내 오늘
재중총련 제1기 답사단으로
혁명전적지답사길에 올라
피로 헤쳐간 그 길따라
높은 산에 올라 사방을 굽어보니
가슴속에 생각은 깊어지누나

너무나 몰랐구나 저 산야에
어떠한 사연 깃들었는지
어느 선렬의 령혼이 잠들었는지
전설처럼 듣고 뇌였으되
그 의미를 다 몰랐고
선렬들의 그 넋을

아!
그래서였구나
백두산기슭 항일의 전장에
깊이도 스며있는 그 넋을 지켜야
자랑높은 어제날의 력사가
래일을 떠받드는
억척의 초석으로 드팀없겠기에

우리 원수님 백두산에 오르시여
우리를 백두산으로 부르셨구나

폭풍에도 드팀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희망의 성산
이 땅우에 기적들과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곳으로
온 민족을 불러주신것 아니냐

가리라 백두산으로
항일전구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
우리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불멸의 태양기 펄펄 날리는
어머니조국과 끝까지 갈 길에
필승의 넋을 주는 태양의 성산으로

봄날에도 가리라 겨울에도 가리라
꿈결에도 가리라 어디서나 오르리라
한생토록 가리라 대를 이어 오르리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조선속담 (사랑)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웃끼리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도와주며 사는것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벗따라 강남간다

벗을 위해 바치는 아름다운 마음을 두고 이르는 말.

-진정한 벗은 어려운 때 안다

참다운 우정은 어려운 때에 진실하게 드러난다는것을 이르는 말.

-친구는 옛친구가 좋고 옷은 새옷이 좋다

친구는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두텁고 깊어서 좋다는것을 이르는 말.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

사람에게 있어서 집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집이나 재물보다도 이웃을 잘 사귀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것이 더 중요함을 이르는 말.

-의가 좋으면 천하도 나누어가진다

의가 좋으면 우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길러준 정이 크고 소중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매우 귀엽거나 사랑스러움을 비겨 이르는 말.

-불면 날가 쥐면 꺼질가

몹시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거나 키운다는 뜻으로 부모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랑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자식이 부모의 맘 반이면 효자 된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생각하는것에 비할바없이 크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　　*　　*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인간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아마도 그것은 향기없는 꽃과 같을것이다.

사랑에는 참으로 많은 뜻이 포함되여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청춘남녀의 사랑, 형제들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지난해 여름에 진행된 제30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하여 페부로 느끼게 되였다.

이것은 나뿐만아니라 야영에 참가하였던 재중동포소년야영단 야영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야영생들은 평양에 도착한 날부터도 물론이였지만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생활하는 나날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재미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만 받은 특전이 아니였다.

조국아이들은 물론 로씨야, 나이제리아, 브라질, 웰남, 중국, 탄자니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야영생들도 야영소지도교원들과 일군들의 관심속에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음식이 어떤가?》, 《입맛에 맞는가?》,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가?》 등 야영생들을 대할 때마다 야영소일군들은 늘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야영생들의 숙소에 찾아와 재미나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으며 그들이 내는 수수께끼도 곧잘 풀군 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의 야영생활은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과의 교류는 물론 야영생활이 그들의 심리에 맞게 다양하게 흘러가니 아이들의 하루하루는 즐거움의 련속이였다. 그래서 야영생들은 하루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저 하늘의 달을 붙잡아놓고싶다고 말하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야영의 나날 야영소지도교원들과 안내원들은 야영생들의 친언니, 친누나, 친어머니였다.

하루는 한 야영생이 나에게 야영소구내에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구호가 왜 씌여져있는가고 묻는것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국의 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으며 무료로 공부하는것은 물론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이께서 경치좋은 곳에 일떠선 아이들을 위한 이런 야영소들을 훌륭히 개건해주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는것은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야영생들은 조국의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겠다고 말하였다.

야영의 나날 나는 새로 꾸려진 원산육아원, 애육원도 참관하였다. 중국에서 텔레비죤이나 인터네트를 통해 조국에 현대적이고 훌륭한 육아원, 애육원이 건설되였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지만 실지 가보니 그 감동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건물과 설비자체가 아이들의 심리와 특성에 맞게 잘 꾸려졌을뿐아니라 보육원들의 뜨거운 인정미 또한 나의 마음을 다시한번 사로잡았다. 부모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와 같이 생기발랄하였다.

육아원, 애육원옆에 건설중의 건물이 있어 물어보니 초등학원, 중등학원이라는것이였다. 그 학원들도 멋있게 건설하고있었다.

정말 후대들에 대한 조국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베풀어주시던 사랑과 꼭같은것이였다.

그늘이 없는 따뜻한 사랑, 세월이 흘러도 변색을 모르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에 있다.

정말 조국이야말로 어디 가나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국장
김영희

고려시기의 민족예술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시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술, 음악, 무용 등 민족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고려시기 민족예술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고려자기의 창안제작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고려인민들은 자기제조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마침내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양, 부드럽고 우아한 색갈, 섬세한 조각과 아담한 문양 등 기교와 예술성에서 당시 세계도자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고려자기를 창안제작함으로써 인류문화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참으로 고려자기는 실용성과 예술성이 통일되고 색갈과 문양, 모양의 아름다움이 잘 조화된 훌륭한 예술작품으로서 세상사람들이 천하명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국보이다.

고려시기에 우리 민족은 도자예술뿐아니라 회화에서도 발전을 이룩하였다.

고려시기의 이름난 화가들로서는 정득공, 리녕 등을 들수 있으며 당시의 대표작으로서는 고려태조 왕건왕릉의 벽화와 《례성강도》, 《천산대렵도》 등이다.

한편 고려시기 우리 인민은 건축예술에서도 뛰여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불교문화가 가장 발전하였던 시기가 바로 고려시기이며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정하였다. 따라서 고려시기 불교사원들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그 예술적가치도 매우 높다. 또한 불교건축물들의 탑들과 돌조각들, 불상들에도 우리 인민의 높은 창조적기술과 뛰여난 재능이 깃들어있다.

흥왕사, 불일사 5층탑, 개성 관음사의 대리석관음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아미타여래상, 금강산 묘길상, 경효왕릉의 돌조각, 만월대, 개경도성 등은 고려건축예술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고려시기에 음악과 무용도 발전하였다. 남다른 음악적재능을 가진 고려인민들은 《어부가》, 《해종일 밭을 갈아도》, 《묵책요》, 《사리화》, 《대동강》 등 로동생활을 반영한 가요와 당대사회의 불합리한 현실과 봉건통치의 부패상을 폭로비판하고 조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인민가요들과 《정과정》, 《서경별곡》, 《청산별곡》, 《관동별곡》 등 새로운 도시서정가요양식의 시조, 가곡, 별곡체가요들을 수많이 창작보급하였다.

그리고 피리, 저대, 가야금, 퉁소, 향비파, 해금, 장고를 비롯한 민족악기들을 적극 리용하면서 쌍현, 방향, 편종, 편경 등 새로운 종류와 형태의 악기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연주에 리용하였다. 문탁, 대어향, 옥기향, 김선, 설원 등과 같이 이름난 기악명수들도 있었다.

고려시기의 궁중음악에서는 여러가지 형식의 민족음악과 함께 다른 나라 음악들도 도입, 연주되였는데 대체로 악기와 악곡들은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것으로 개작한것이였다.

고려시기 무용작품들도 수많이 창작보급되였다. 고려시기의 무용은 대체로 인민창작무용과 함께 궁중무용작품으로 갈라볼수 있다.

이 시기 인민가요와 민간가무에 기초한 다양한 주제의 가무작품들이 널리 창작보급되였는데 봉건정부에서 이러한 가무들은 주로 팔관회, 연등회 등 불교행사끝에 진행되는 예술공연의 중요한 종목으로 되였다. 그 대표적인것으로서는 《처용무》, 《무애무》, 《산대무극》 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궁중교방예술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가무작품들도 수많이 창작보급되였다. 대표작으로서는 《무고》, 《동동무》, 《포구악》, 《헌선도》, 《련화대》 등을 들수 있다.

고려시기 가면무용극도 널리 창작되였는데 고려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무대와 관람석을 설치하고 직업적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단계에로 넘어갔으며 탈놀이, 인형놀이가 탈극, 인형극으로 발전하고 화극(이야기극)이 새로 발생하여 극예술은 자기의 뚜렷한 형태상특성을 갖추면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고려시기에 창조한 아름다운 인민적인 언어로 엮어진 노래와 약동적인 무용동작은 그후 대중적인 인민무용예술발전을 위한 기초로 되였다. 고려시기 민족예술발전의 밑바탕에는 또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윤신영

탕중에서 으뜸으로 일러주는 룡봉탕

이렇게 창밖에 맵짠 칼바람이 쌩쌩 불고있는 추운 겨울날에도 우리네 가정들마다에는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 차넘치고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은 어머니와 안해들의 진실한 사랑을 그득히 담고 담아 정히 만든 음식들만 보아도 4계절을 모르는 따뜻한 그 정을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퍽 오랜 시간동안 주체105(2016)년의 첫호《민족의 향기》란에 올릴 수많은 이야기감들을 여러가지로 꼽아보다가 탕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룡봉탕》을 소개하는것이 당연하다는 답을 찾았습니다.

룡봉탕에 대한 소개에 앞서 조선민족음식의 하나인 탕에 대한 리해가 적은분들을 위하여 몇마디 적겠습니다.

탕이란 고기, 물고기, 남새 등을 섞어서 진하게 끓인것으로서 국물보다 건데기가 더 많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음식입니다. 《삼국사기》에도 탕에 대한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탕은 삼국시기이전부터 만들어먹은 음식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탕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물이 비교적 많은 탕으로는 대구탕, 설렁탕, 잉어탕 등을 들수 있고 국물이 비교적 적은 탕으로는 닭탕, 숭어탕, 두부탕, 명태탕, 조개탕 등을 들수 있습니다. 또한 국물이 거의 없는 탕으로는 해삼탕, 잡탕, 내포탕, 열구자탕(신선로) 등을 들수 있습니다.

탕은 조리방법과 맛에 따라 대체로 세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한가지 재료만 끓여서 기본원료의 맛이 두드러지게 한것, 여러가지 재료를 함께 넣어끓여서 그 맛들이 서로 배합되게 한것, 원료들을 제각기 조리하여 함께 끓임으로써 매 원료의 독특한 맛을 나타낸것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룡봉탕은 두가지 재료를 함께 넣어끓이기때문에 두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궁중음식이였던 룡봉탕은 말그대로 룡과 봉황을 함께 넣어끓인 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있습니다. 상징동물들인 룡과 봉황을 넣고 탕을 끓였을리는 만무하지만 잉어를 룡에, 닭을 봉황에 비유한것만 보아도 음식의 금새를 어렵지 않게 가늠할수 있을것입니다.

얼마전 남포시 천리마구역의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룡봉탕집을 찾은 우리는 그곳 책임자 로춘화녀성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룡봉탕은 원래 먼 옛날부터 왕과 그 가문들만 먹었다고 합니다. 평안도지방의 특산물인 룡봉탕이 궁중음식으로 된것은 약리작용이 대단히 큰것과 관련되여있었습니다.

잉어에는 단백질이

많을뿐아니라 칼시움과 린 등의 광물질과 특히 비타민 B1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잉어의 단백질은 거의 모두가 필수아미노산으로 된 완전단백질이며 흡수률이 매우 높습니다. 닭고기도 영양보충제로는 그저그만입니다.

기본음식감으로는 잉어 한마리와 햇닭 한마리를 준비합니다.

먼저 깨끗이 손질한 닭고기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 가마에 넣고 물을 충분히 부은 다음 푹 끓입니다. 닭고기가 익으면 가마에 4~5㎝로 토막낸 잉어를 넣고 5~7분정도 더 끓입니다. 여기에 말린 참나무버섯이나 느타리버섯 50g을 끓는 물에 데쳐낸 후 가늘게 썰어 넣고 약간의 된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한소끔 끓으면 얇게 지져서 보기좋게 썬 닭알과 썬 파, 다진 마늘, 닦은 참깨, 고추가루, 후추가루, 맛내기를 두고 실고추로 고명합니다.

룡봉탕이 완성되면 따끈하게 덥힌 탕그릇에 담아 상에 냅니다.

이렇게 성의를 다하여 만든 룡봉탕은 손님들의 입맛을 돋구어주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우리 식당의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룡봉탕을 맛보고싶은분들은 조국방문의 나날 남포시로 가는 길에 그 어느때나 룡봉탕집에 들려보십시오.

그러면 한겨울에도 땀을 철철 흘리며 유명한 룡봉탕을 들면서 옛날 궁중음식의 진맛에 대한 이야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강철성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2)

- 동명왕릉 -

동명왕(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를 세운 고구려의 시조왕)릉은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습니다.

원래 동명왕의 무덤은 그가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에 있었는데 수도를 옮길 때마다 시조의 무덤을 함께 옮기는 풍습에 의하여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위치에 오게 되였습니다.

동명왕릉은 남향한 돌칸흙무덤입니다. 무덤무지는 방대형이며 높이는 11. 5m인데 무덤의 밑부분은 네면에 돌로 기단을 쌓았습니다. 무덤무지가 흘러내리는것을 막기 위하여 돌로 기단을 쌓는 형식은 고구려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릉의 내부는 안칸, 앞칸, 무덤길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안칸의 벽면과 천정은 서로 각이한 크기로 가공한 44개의 돌을 가지고 정밀하게 쌓고 돌사이의 짬은 석회를 발라 메꾸었으며 앞칸과 무덤길 역시 벽과 바닥, 천정이 모두 돌로 쌓여져있습니다. 동명왕릉은 2중으로 문을 달았는데 이것은 왕릉의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무덤을 만들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동명왕릉에는 벽화도 있는데 무덤안칸의 네벽면과 천정에 그려져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이 물에 씻겨 없어지고 그 일부만이 남아있는것을 주체63(1974)년에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벽화는 가공한 돌벽면우에 바탕색을 바르고 그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련꽃을 그린것입니다. 발굴과정에 104개의 련꽃이 알려졌지만 지워진 것까지 복원해보면 모두 641개의 련꽃이 그려졌던것으로 추산됩니다. 동명왕릉발굴과정에 유물들도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이 금 또는 청동으로 만들었거나 금, 은도금장식을 한 것들로서 고구려의 야금 및 금속공예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더우기 왕관의 장식품이였던 보요는 이 무덤의 주인공이 살아있을 때 왕관을 썼던 사람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줍니다.

정릉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비《東明王陵改建記念碑》
(동명왕릉개건기념비)

동명왕릉이 자리잡고있는 무덤구역에는 왕릉과 돌상, 돌등 그리고 범조각상 2개가 있고 좌우앞으로 문관 및 무관조각상들과 그들이 타던 말조각상들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밖에 망주석과 돌화로가 있습니다. 무덤구역의 아래단의 동쪽에는 한자로 쓴《고구려시조 동명성왕비》와《고구려시조 동명성왕기적비》가 각각 우리 말로 된 해설비들과 함께 세워져있고 서쪽에는 제당건물이, 남쪽에는 릉문이 배치되여있습니다. 비문에는 동명왕의 출생과 활동, 사망에 이르기까지 동명왕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씌여져있습니다.《고구려시조 동명성왕기적비》는 그 크기와 형식에 있어서《고구려시조 동명성왕비》와 같습니다.

동명왕릉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m떨어진 곳에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정릉사가 있습니다. 393년에 지었는데 부지면적은 3만 7 000㎡이며 삼국시기 우리 나라 사찰들가운데서 규모가 제일 큰것입니다.

동명왕릉주위에는 모두 19기의 고구려무덤들이 분포되여있는데 동명왕과 함께 고구려봉건국가를 세우는데 참가하였거나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웠으며 고구려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을 세운 장군, 대신, 학자들이 묻혀있습니다. 동명왕릉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400m정도 떨어진 골짜기를 끼고 있는 낮은 지대에는 진주못이 있습니다.

동명왕릉
제당의 외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도굴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있던 동명왕릉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10여차례의 현지지도와 수십차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름있는 학자들로 학술연구사업을 하도록 하시고 왕릉형성설계력량을 무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개건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세세히 밝혀주심으로써 동명왕릉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되여 주체82(1993)년 5월에 준공되였습니다.

조국인민들은 동명왕릉개건에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동명왕릉개건기념비》의 앞면에 그이께서 한자로 쓰신《東明王陵改建記念碑》(동명왕릉개건기념비)라는 글발을 새겨넣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사 화

《천하제일강산》

평양의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련광정에 오르면 동쪽들보에는 《천하제일강산》이라고 한자로 쓴 큰 현판이 걸려있다. 이 현판의 글자는 옛날부터 전해져오고있다.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련광정의 들보에 걸리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16세기 평양에 왔던 중국의 한 사신이 어느날 련광정에 올랐다. 련광정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된 그는 그후 자주 이곳에 오군 하였다.

사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날이였다. 그는 거리에 가서 목공에게 돈을 내면서 판대기를 댄 액틀을 하나 잘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글씨로 《천하제일강산》이라는 글을 정성들여 썼다. 사신은 그것을 가지고 련광정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세상에 태여나서 오늘까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도록 수많은 고장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는 처음 봅니다. 이런 곳을 어찌 〈천하제일강산〉이라 부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이니 이 액자를 정각에 걸어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하제일강산》이라는 액자가 련광정의 들보에 걸리게 되였다.

그후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 한창이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우리 나라에 침입해왔던 일본침략군의 우두머리가 평양에 기여들어 련광정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자는 련광정에 오르다가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보고 소리쳤다.

《저 현판을 당장 떼버리라. 이 세상 한쪽끝에 있는 작은 나라에 어찌 천하에 제일가는 강산이 있다고 할수 있단 말인가.》

우두머리는 자기 군졸들이 현판을 떼내는것을 보고서야 련광정에 올라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그자는 저도모르게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연신 감탄하였다. 그러다가 기가 꺾인 목소리로 떼여내린 현판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긴 칼로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에서 《천하》라는 두 글자를 내리쳐 잘라낸 그자는 《제일강산》이라는 글자만이 남은 현판을 제자리에 다시 걸어놓으라고 하였다. 군졸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서 주저하자 그자는 《〈천하〉라는 말에는 비위가 거슬리지만 이곳이 제일강산이라는것은 부인할수 없구나.》라고 말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을 몰아낸 뒤 평양사람들은 《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그대로 놓아두고 전해왔다. 비록 《천하》라는 두 글자는 떨어져나갔으나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던 침략자들까지도 평양의 절경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평양의 자랑거리로 될만하다고 여겼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련광정에 올라 《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보는 사람들은 옛날에 없어졌다는 《천하》라는 두 글자를 놓고 더욱 아쉬워하였다.

세월이 흘러 인민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련광정의 현판에 오래전에 없어졌던 《천하》라는 두 글자를 다시 써넣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련광정 정각의 들보에는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이 다시 걸리게 되였다.

*　*　*

야 화

백결의 《방아타령》

백결은 삼국시기 경주 량산기슭에서 살던 음악가였다.

그는 살림이 매우 가난하여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형편이였다. 옷도 한번 해입은것이 마치 백가지 천오리를 매여기운것 같다고 하여 그에게 《백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였다.

그는 생활이 아무리 가난하여도 조금도 상심하지 않고 오직 거문고로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는것을 락으로 여기였다. 그는 거문고로 사람들의 어떠한 감정도 다 표현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과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였으며 성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토하기도 하였다.

어느해 설명절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설명절준비로 잘사는 집들에서는 쌀찧는 방아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쓸쓸한 방안에서 이 소리를 듣다못해 안해가 백결에게 푸념을 했다.

《남들은 명절맞을 쌀을 찧고 있는데 우리만 곡식이 없어 빈 방에 앉아있으니 무엇으로 설명절을 쇠겠나이까?》

백결은 넌지시 웃고나서 조용한 말로 달래였다.

《여보, 남의 집 방아찧는 소리가 그렇게 부러우면 내 그대를 위해 방아노래를 지어 위로하겠소.》

백결은 거문고를 당겨 《쿵덕쿵, 쿵덕쿵》 방아찧는 소리를 내며 즐겁게 연주하였는데 그 소리가 집안에 차고넘치였다.

이웃집들에서도 백결의 집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맞추어 방아를 찧으며 노래를 배웠는데 그것이 《방아타령》이였다고 한다.

*　*　*

력사인물

도　　림

도림은 지혜가 있고 묘술을 잘 쓰며 정탐을 잘하기로 이름났던 고구려사람이였다. 그의 지혜와 묘술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그의 지략에 의해 백제의 수도와 여러성이 일시에 함락되였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때는 475년이였다. 당시 고구려는 고조선, 부여의 옛땅들을 거의다 찾고 서쪽국경에 이르게 되면서 남방의 국토통합정책을 강하게 추진시켜나갔다. 바빠맞은 백제왕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이렇게 되자 고구려는 전연지대 깊이에서 은밀히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훈련시키는 한편 백제왕정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추진시키면서 그를 위한 적중한 인물을 비밀리에 탐문하였다. 여기에 자진하여 나선 사람이 바로 도림이였다.

도림은 중으로 자처하면서 절간에 가서 도를 닦고있던중이였다. 임무를 받은 그는 고구려에서 죄를 범하고 도망치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백제에로 침투하였다. 침투한 그는 여러곳을 다니며 비밀을 내탐하였으며 궁궐에 찾아가서는 《내가 젊어서 바둑을 배워 묘한수를 알게 되였으니 한번 떠보게 하여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

그가 그런것은 백제왕이 바둑을 매우 좋아하는것을 리용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백제왕이 그를 불러 바둑을 같이 두게 되였다. 그런데 바둑을 두어보니 그의 바둑수는 과연 백제에서는 으뜸이였다. 왕은 그에게 반하게 되였으며 이내 그를 자기의 바둑손님으로 정하고 궁궐에 있으면서 높은 대우를 받게 해주었다.

이렇게 몇달이 지나갔다. 그 기간 그는 왕의 측근에서 바둑동무, 말동무로 있으면서 왕과 완전히 친숙하게 되였다. 이렇게 왕을 주물러놓은 그는 어느날 왕에게 대왕의 나라는 하늘이 정해준 요새여서 감히 엿볼 마음은 없고 받들어 섬길것만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니 왕의 기세와 위엄을 보다 높여주기 위한 궁실들과 선왕의 무덤, 백성들의 집들을 한시바삐 고쳐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속아넘어간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날로 전국에서 사람들을 징발하게 하였으며 이어 벽돌을 구워 궁실, 루각, 정자들을 지었다. 그런가 하면 먼곳에서 돌을 캐내여 선조들의 무덤을 굉장하게 쌓기 시작하였다. 국경지방의 수비병들까지 징발할 정도로 사람들이 공사에 동원되다나니 그해 농사는 거의 페농하게 되였으며 그로하여 국가창고는 텅 비고 백성들의 생활은 곤궁에 빠져들게 되였다. 그야말로 나라가 위태롭게 되여가고있었다.

그러한 때 도림은 귀국하여 고구려의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고구려군은 백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수만명의 고구려군사들은 장수왕의 지휘밑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일시에 공격하여 함락하였으며 국경부근의 여러성을 점령하는 전과를 거두게 되였다.

*　*　*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농업계절력과 생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중에는 발전된 농업계절력인 24절기를 제정하여 사용하는 전통도 있다.

24절기의 이름들에는 먼 옛날부터 자연에 대한 관찰과 생활과정에 축적한 경험과 우리 선조들의 소박한 념원이 잘 반영되여있다.

24절기들의 이름을 제정한것을 보면 기본기준점들인 2지(동지, 하지)와 2분(춘분, 추분), 4립(립춘, 립하, 립추, 립동)의 8개 절기들의 이름은 천문학적계절점(동지, 하지, 춘분, 추분은 밤낮의 길이에 따라 짓고 립춘, 립하, 립추, 립동은 4계절의 시작과 관련하여 지어짐)들에 의해 지었으며 24절기의 세분점들인 16개 절기들의 이름은 농업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적현상들에 기초하여 지었다.

그것을 본다면 봄철절기들인 우수, 경칩, 청명, 곡우 등은 비와 날씨, 여름철절기들인 소만, 망종, 소서, 대서 등은 농작물상태와 더위, 가을철절기들인 처서, 백로, 한로, 상강 등은 더위의 물러감과 이슬과 서리와 관련하여 지었으며 겨울철절기들인 소설, 대설, 소한, 대한 등은 눈과 추위와 관련된 이름들이다.

우리 선조들은 24절기를 정하였을뿐만아니라 그 기상기후적특징에 맞는 로동생활풍습도 창조하여왔다.

매해 1월에 오는 소한(1월 5~6일)과 대한(1월 20~21일)은 추위와 강추위가 오는 절기로서 이 시기에는 대체로 새해 농사차비를 하였다.

2월에 오는 립춘(2월 4~5일)과 우수(2월 18~19일)는 봄철에 들어서기 시작하여 봄기운이 돌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로서 이 시기에는 주로 두엄을 밭에 내는 등 농사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3월에 오는 경칩(3월 5~6일)과 춘분(3월 20~21일)때에는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깨여나기 시작하며 낮시간과 밤시간이 같으므로 이 시기에는 밭갈이를 시작하고 과일나무와 뽕나무를 집부근에 심고 가꾸며 병아리를 깨우고 산과 들에서 나물을 뜯어다 음식을 만들어먹었다.

4월에 오는 청명(4월 4~5일)과 곡우(4월 19~20일)는 하늘이 푸르고 날씨가 맑은 날과 농작물에 리로운 비가 내리는 날이라는 뜻으로서 이 절기에는 콩을 심고 논을 갈며 집주변에 박, 호박, 부루, 가지, 고추, 파 등을 심었다.

5월의 립하(5월 5~6일)와 소만(5월 21~22일)은 여름이 시작되고 밀보리가 익어가는 절기로서 이 시기에는 논써레를 치고 모내기를 하였으며 꿀벌도 쳤다.

망종(6월 5~6일)과 하지(6월 21~22일)는 파종을 끝내며 모내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매우 바쁜 절기로서 한여름이 다가왔다는 뜻으로서 소만에 시작한 씨붙임과 모내기를 하지전까지 무조건 끝내였다.

소서(7월 7~8일)와 대서(7월 22~23일)는 무더위가 오는 절기로서 이 시기에는 주로 논김매기를 하였으며 립추(8월 7~8일)와 처서(8월 23~24일)가 오는 8월은 가을이 시작되고 무더위가 물러가는 절기로서 이 시기에는 논밭에서 새를 쫓는 소리가 들리고 곡식을 걷어낸 밭에 김장남새를 심고 가지, 오이를 따들여 말리우거나 절여 겨울반찬감을 준비하였다.

백로(9월 7~8일)와 추분(9월 22~23일)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 낮시간과 밤시간이 같은 가을날로서 이 시기에는 벼, 콩, 수수를 비롯한 곡식의 가을을 시작하였다.

한로(10월 8~9일)와 상강(10월 23~24일)은 찬이슬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며 산에 단풍이 들고 가을걷이로 바쁜 절기이다.

립동(11월 7~8일)과 소설(11월 22~23일)은 겨울철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로서 이 시기에는 무우, 배추를 걷어들여 김장을 하였다.

대설(12월 7~8일)과 동지(12월 21~22일)는 많은 량의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 절기로서 주로 걷어들인 곡식들을 탈곡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한해를 24절기로 구분한 농업계절력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로동생활을 하여왔다.

사회과학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영환

반미에 자주가 있고 자주에 통일이 있다

70년이상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비분속에 새해를 맞고있는 해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 열정과 의지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북과 남은 마주앉아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를 이룩한데 이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두고 몹시 배아파하는 나라가 있다. 그것이 바로 늘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 통일문제에 끼여들어 훼방을 놓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이다.

북남합의에 대해 《두고보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심술궂게 놀던 미국이 공화국의 자주적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그 무슨 《도발》을 떠들고 그에 따른 남조선파의 《공조강화》를 내세우며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못된 심보를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인권》공세야말로 《북을 압박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며 《북인권》문제를 걸고 반공화국모략의 도수를 더 높이고있다.

현실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미국의 반통일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것은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한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요된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때문에 조국은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70년이 지나도록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지난 민족분렬의 력사는 북과 남을 리간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해온 미국의 반통일적인 력사이다. 미국은 력대로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관계개선의 기미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6. 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여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펼쳐지자 그것을 방해해나선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10. 4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을 때에도 미국은 친미보수《정권》의 조작으로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을 막아나섰다.

보다싶이 풀릴가 하면 다시금 꼬이는 북남관계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있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미국의 반통일책동의 롱락물로 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세찬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간섭의 마수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와 《북인권법》조작, 그 누구의 《도발억제》를 위한 남조선집권세력의 국제적인 공조, 해마다 진행되는 북침전쟁도발책동 등은 다 미국의 반통일책동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북침핵공격무력을 증강하는 미국의 책동을 묵인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날것은 핵전쟁이며 그로 하여 피해를 입을것은 우리 민족이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걱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 엄혹한 상황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외세의 반통일책동으로 정세가 복잡하고 시련이 겹쌓일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게 하는 자주의 리념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북과 남은 응당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반미에 자주가 있고 자주에 통일이 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민족성원이라면 남조선에 틀고앉아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일삼으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는 미국을 반대하는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진룡진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물우의 박물관이 되여 력사적인 조미대결전의 증견물로 떠있다.

조국인민들은 물론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이 간첩선을 돌아보고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주체57(1968)년 1월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은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소롭게도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수많은 륙해공군을 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보복》을 운운해나섰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은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사죄문건에 서명하고 포로들을 데려갈수 있었다. 그러나 《푸에블로》호는 조선의 전리품으로서 절대로 가져갈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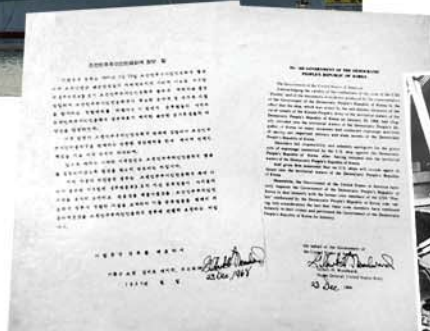
당시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작은 나라에 한대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있다.》, AP통신은 《자기의 전능을 자랑하는 미국도 무능력을 드러내놓고있다.》라고 개탄과 비명을 질렀다.

《푸에블로》호사건은 우리 조국에 대한 미국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는 동시에 력사적으로 조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는 조선의 전통, 패배는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임을 산 증거물로 보여주었다.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할것이지만 미국은 이를 망각하고 오늘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다.

그 야망에 《푸에블로》호가 미국을 향해 이렇게 웨치는듯 싶다.

미국땅전체가 조선에 묶이워있게 하지 말라고.

본사기자

간첩행위를 인정하고 자백서를 쓰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함장(우)과 사죄문에 수표하는 미륙군 소장 길버트 에이치. 우드워드(아래)

총련탄압책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법치》에 대해 떠들기를 좋아한다. 그 알량한 《법치》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에 대해서는 언제나 극도의 악의와 속좁은 편견, 로골적인 적대감과 무분별한 파쑈적횡포로 표현된다.

이것은 지난해에 있은 총련탄압책동을 놓고 말할수 있다.

지난해 3월 일본경찰당국은 《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는 죄명을 날조하여 동방주식회사의 《외환법》위반행위와 억지로 련결시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등 일군들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전례없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세계면전에서 망신만 당하였다.

그러나 자기들의 행위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그로부터 2개월이 흐른 5월에 또다시 일본반동들은 교또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의 각 경찰본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총련일군들인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과 관계자들의 집에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그들을 죄인취급하면서 다짜고짜로 수갑을 채워 강제련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수사당국은 그들을 체포한 때로부터 불과 5분후에 일본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아들을 체포하였다는 제목을 달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체포된 총련일군들이 문제의 동방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중 2명을 법원에 기소하여 어떻게 하나 사건을 계속 끌고나가려고 발악하였다.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총련탄압망동은 많은것을 시사해주었다.

이것은 이른바 《법치국가》를 떠들어온 일본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총련에 대한 파쑈적폭거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유린, 민족차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당시 총련에서는 총련결성 60돐을 지향하여 전동포적인 경축분위기가 고조되고있었다.

바로 일본당국은 이 행사를 파탄시켜 총련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총련을 《위법단체》, 《범죄단체》로 몰아 일본사회에 반총련, 반조선인적대분위기를 더한층 고취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총련에 대한 일본경찰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재일동포들

더우기 합동수사본부의 파쑈적폭거를 마치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처럼 비호해나선 일본수상관저측의 발언은 일본당국의 조직적인 지휘밑에 체포만행이 감행되였음을 스스로 폭로해주었다.

또한 일본내에 반공화국, 반총련분위기를 고취함으로써 과거죄악을 은폐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조선반도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망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도 시사해주었다.

《법치》의 간판아래 불법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총련에 대한 반인권적, 파쑈적폭거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일본당국이 히스테리적인 총련말살책동에 광분할수록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로서의 일본의 추악하고 비렬한 정체는 세계면전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날뿐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날이 감에 따라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총련을 기어코 말살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오산이며 망상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민족배타주의와 민족말살정책이 살판치는 일본의 험악한 정치풍토속에서도 60여년동안이나 자기의 조직과 존엄을 꿋꿋이 고수해오고있다.

뿌리깊은 나무가 폭풍에도 끄떡없듯이 탄압의 광풍이 아무리 모질고 세차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의 신념은 굳건하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이 조일관계를 더는 되돌려세울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로 몰아넣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솔미

당장 제 소굴로 쫓아보내야 할 범죄집단

인류력사는 강점군의 만행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미제침략군만큼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폭력범죄로부터 도적질에 이르기까지 온갖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흉악한 무리는 알지 못한다.

미국이 남조선에 《해방자》의 탈을 씌워 저들의 더러운 고용병무리들을 들이민지도 70년이 넘었다. 미제침략군의 피묻은 군화발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원성이 그칠새가 없었다. 1945년 당시 미군의 종군기자였던 마크 게인은 자기의 수기에서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 우리들은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하였다.》라고 폭로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방성이 조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에게 발급하는 소책자들에는 《당신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아래 《미국병사들은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가 되여야 한다.》라고 씌여져있었다.

그것은 그대로 사병들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의 일개 대포밥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와 타민족들에 대한 침략과 정복을 설교하며 딸라에 팔린 저들의 고용병들에게 로골적으로 내린 살인지령이였다.

《귀신도 기가 막혀 통곡할 참극》이라고 부르는 1950년 7월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 400여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은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치를 떨게 한다.

《어머니는 복부아래와 발목에 파편을 맞아 피투성이였고 녀동생은 한쪽눈이 피범벅이 되여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만 녀동생의 눈알이 빠져 데룽데룽 매달려있었다.》, 《희생자들이 굴주변과 개울바닥에 널려있어 일부 사람들은 날아오는 총탄을 막기 위해 시신들로 바리케트를 쌓기도 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개울에 흐르는 피물을 떠먹으며 나흘을 버티였다.》라고 한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살인마, 식인종의 무리라는것을 고발하고있다.

강점 첫날부터 남조선을 하나의 《인간사냥터》, 《자유사격장》, 《살인숙련장》으로 전변시킨 미제침략군의 살인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그뿐이 아니다. 인간도살을 쾌락으로 여기는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녀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그들의 정조와 육체적생명마저 서슴없이 짓밟는 패륜패덕의 무리들이다.

1992년 10월 동두천기지의 녀성종업원을 릉욕한 뒤 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실신케 하고 피흘리며 죽어가는 녀성의 자궁에 병을 틀어박고 홍문에 우산을 꽂아넣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지른 윤금이살해사건과 2002년 길가던 나어린 녀중학생들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은 패륜패덕과 인간증오로 길들여진 양키들의 범죄적만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고발해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한 사병은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맞다드는 남조선사람들을 모두 두들겨패고 보이는것은 모조리 빼앗는것을 당연시하였고 녀자를 보면 닥치는대로 강간하였다. 열세살난 소녀도, 애를 안고 사정하는 부인도 미군에 강간당하고 버려졌으며 이에 항거하는 사람은 그가 젊은이건 늙은이건 가차없이 쏴죽이고 때려죽였다.》라고 실토하였다.

하기에 로씨야인터네트통신 《이노스미. 루》는 1945년부터 1953년사이에만도 35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미군의 성노리개로 되였으며 현재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끌려간 남조선성노예의 수가 100만명에 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런 가증스러운 침략자들이 최근에는 남조선당국으로부터 빨아낸 《방위비분담금》을 이리저리 굴려 엄청난 액수의 리자를 받아먹는 금융사기행위까지 저지르며 제배를 채우고 남조선에 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수 있는 량의 마약을 5년동안이나 밀반입하여 남조선민심을 더욱 분노케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조선민족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남조선에서 온갖 범죄의 온상인 미제침략군을 당장 제 소굴로 쫓아보내야 남조선인민들이 미군범죄의 악몽에서 벗어나 발편잠을 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민족은 힘을 합쳐 민족분렬의 화근이며 조선반도평화의 암인 흉악한 범죄의 무리 미제침략군을 당장 제 소굴로 쫓아보내야 한다.

본사기자

고 화

《활 터》

고화 《활터》는 김홍도(1745년-?)가 그린 그림이다. 그의 자는 사능, 호는 단원, 단구, 서호, 고면거사, 취화사, 첩취옹이다. 김홍도는 18~19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경향의 진보적인 화가이다. 도화서 화원, 연풍현감도 지내였다.

작품에 반영된 곳은 조선봉건왕조시기 경희궁북쪽의 군자정옆에 있던 훈련도감의 분영인 북1영의 활터이다. 가까이에는 어영청(중앙군단의 하나)의 분영인 북2영이 있었다.

활쏘기는 높이 12자, 너비 8자의 과녁을 80간거리에 세워놓고 사수들이 한번에 한대씩 돌려가며 다섯대를 쏘는 방법으로 하였다. 그뒤에는 기생들이 앉아있다가 과녁을 맞힐 때마다 《지화자》를 불러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당시의 활터광경이 비교적 상세히 그려져있다.

*　*　*

모란봉의 겨울　　본사기자 남진범

기묘한 땅생김과 짙은 록음, 철따라 곱게 피여나는 갖가지 꽃들이 하나로 어울려 아름다움을 한껏 자아내던 모란봉에 겨울이 왔다.

파아란 하늘아래 봉우리마다, 나무마다 흰눈이 한껏 덮여 황홀경을 자아내는 모란봉의 겨울은 을밀대의 봄맞이나 부벽루의 달맞이에 짝지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582150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